

↑ 코스피 2774.29 (+10.78)	↑ 코스닥 812.12 (+2.16)
↑ 금리 (미국 9년) 3.661 (+0.013)	↓ 환율 (원·달러) 1386.20 (-2.00)

호우 등 기상이변에
7월 물가
일시적 반등 가능성
02



내년 AI교과서 전국 도입 ‘슈퍼엔저’ 끝물?... 원·엔 환율 880원대 안착 혁신 vs 학습저하 ‘논란’

오는 2025년부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교과서)가 도입된다. 전국에 AI교과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일각에서는 교육 혁신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검증기간이 충분치 않다”며 디지털교과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학생들이 자주 틀린 문항의 주요 개념을 다시 설명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제시하는 등 AI가 학습자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AI교과서를 순차 도입한다. 2025년 초에는 초·중·고 3·4학년과 중1, 고1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한다. 2026년에는 초·중·고 5·6학년과 중2, 2027년에는 중3을 거쳐 확대되며 교과목은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AI 교과서 순차 도입 韓, ‘세계 최초’ 전국 일괄 적용 교사-학생 1대1 맞춤형 교육 기대

학부모들 디지털기기 의존 우려 ‘도입 유보’ 국민청원까지 등장

교육부 관계자는 “AI교과서 도입으로 교사 1명이 여러 학생을 맡아야 하는 수업 방식에서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공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결하고 서책형 교과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들은 오는 8월 21일까지 교육부에 AI교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출된 AI교과서에 대해 11월 중으로 검증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AI교과서 유보 청원 등장

AI교과서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AI교과서가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켜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안 그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데, 교과서까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교과서 도입’ 이미지.

아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디지털 기기에 더 의존하게 될 것 같아 겁난다”고 걱정했다.

이러한 우려가 계속되자, AI교과서를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5월 올라온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약 한달만에 5만650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청원에 대해 “AI교과서는 수업의 보조 도구일 뿐”이라며 “지면 교과서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 교육부 “수업 보조 도구... 우려 해소할 것”

교육부는 “AI교과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도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도구”라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부는 AI교과서 구동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963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고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방점을 뒀던 디지털기기 보급 등 인프라 양적 확대를 넘어 적합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각 시·도 교육청도 AI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비해 교사들의 연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AI교과서 교원 연수 예산으로만 3800억원을 책정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지난 19일 ‘AI 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에 협력 중이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 등 AI 교과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 (3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금리인하·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100엔당 850원대서 빠르게 상승

이달 초 100엔당 850원대에 머물렀던 원·엔 환율이 빠르게 상승해 880원대에 안착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적완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

2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0.9원(0.1%) 내린 100엔당 885.6원에 오름세를 보였다. 환율은 전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밤 야간 거래(오전 2시 증가)된 883.4원보다는 소폭 올라 880원대 중반을 유지했다.

지난 11일 100엔당 852.7원(오후 3시 30분 증가)이었던 원·엔 환율은 18일에는 884.4원까지 오르며 880원대에 진입한 이후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원·엔 환율은 계속된 엔화 가치 하락에 지난달 말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100엔당 85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원·엔 환율은 이달 중순까지 100엔당 850원대에 머물렀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완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 12일부터 상승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포인트(p) 하락한 3.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측치를 소폭 하회한 수준으로, CPI는 시장 예측

을 뒤엎고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치는 94.1%로, 지난 6월 말 전망치인 64.1%에서 크게 올랐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엔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다.

트럼프는 미국의 수출 촉진 및 제조업 부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수출 증대를 위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계속된 엔저를 겨냥해 “우리는 심각한 통화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강달러와 엔화·위안화 약세는 미국에 매우 불리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 대표 후보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與 새 대표에 한동훈... 집권여당 개혁 신호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

당심·민심 고른 지지... 63%로 1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며 집권여당 개혁의 신호탄을 쏘았다. (관련기사 6면)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는 당원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32만702표(전체 대비 62.8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원희룡 후보(9만6177표, 18.85%), 3위는 나경원 후보(7만4419표, 14.58%), 4위는 윤상현 후보(1만9051표, 3.73%)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전당대회

에 참석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2개월 만에 당권을 도전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이날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특히 한 대표는 선거운동과정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3대 의욕

(사전·여론조사팀·운영·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 등으로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았으나, 당심과 민심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수성했다.

이와 함께,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팀 한동훈(박정호·장동혁·진종오 후보) 중 장동혁 후보가 최고위원, 진종오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됐다. 나머지 최고위원은 김재원·인요한 후보가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 4위 안에 여성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인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 내일 기자회견... 방송4법 상정 방침 밝힐 듯 /사진 뉴스스
▲ 검찰, ‘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 병무청장 “병역진로설계 등 청년유일 정부청년정책에 포함”
▲ 정부 “북, 지방공업공장 20개 건설”... 정상 운영은 미지수



▲ 코이카·aT, 저탄소 식생활 확산·글로벌 인재육성 ‘맞손’
▲ 황우여 “정권 재창출, 대통령과 합심해 당이 뒷받침해야” /사진 뉴스스

“기상이변에 물가 오를 수도… 일자리예산 4.6조 신속집행”

최상목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내달 이후 농산물 수급 개선될 것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 방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원 확대”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불안이 다시 대두될 조짐이 생겨났다. 이달 쏟아진 호우 여파로 채솟값이 강세를 보이는 데다, 정부 역시 기상이변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다”며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긴 바 있다. 올해 2분기 이후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 탓에 채소와 과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가격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채소를 고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119.19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동향 및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 민생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전 부처가 세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지원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한

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 원을 신속 집행했다”며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 나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대국민 체험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고령화에 따라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보증금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인구 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하는 등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슈퍼엔저 끝물?’서 계속

농심 ‘글로벌 농부’로… 사우디에 ‘K스마트팜’ 구축

농식품부 스마트팜 수출사업 선정
중소기업 3곳과 컨소시엄 구성
내년 말까지 4000㎡ 시설 구축

농심이 중동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술력을 선보인다.

농심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사우디아라비아 시범온실 조성 및 운영)’에 선정, 전날 농심 본사에서 협약식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구축 및 운영해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중동 현지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심은 지난 1995년 강원도 평창에 감자연구소를 설립하며 스마트팜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농심은 스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종서를 생산, 보급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후 2008년 안양공장 내 수직농장을 만들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2018년 사내 스타트업팀을 구성



지난 22일, 농심 본사에서 농심을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기업 4개사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 협약식이 열렸다. (오른쪽부터) 에스팜 강성민 대표, 농심 이병학 대표이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호근 원장, 아이오크롭스 조진형 대표, 포미트 강기수 대표가 촬영하고 있다. /농심

하고 60평의 특수작물 연구를 위한 재배시설과 200평의 양산형 모델 스마트팜을 신설했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농심은 2022년 11월에는 오만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처음으로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을 내디뎠고, 이후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스마트팜 수출 MOU를 맺었다.

농심은 이번 중동 스마트팜 사업을

중소기업 3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컨소시엄은 시설구축과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농심과 함께 온실 운영과 작물 재배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에스팜’, 스마트팜 관리 AI로봇 기업 ‘아이오크롭스’, 스마트팜 플랜트 정보기술기업 ‘포미트’로 구성됐다. 농심은 2025년 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역 약 4000㎡ 부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을 맡게 된다.

스마트팜은 최근 중동지역에서도 도입 니즈가 큰 ‘수직농장’과 ‘유리온실’ 복합 모델로 구성한다. 수직농장에서는 프릴드아이스, 케일과 같은 엽채류, 유리온실에서는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게 된다. 단맛을 선호하는 중동인들의 입맛에 맞춰 쓴맛이 덜한 엽채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과채류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한다.

농심이 생산한 작물은 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의 기존 유통망을 통해 우선 판매하고, 향후 현지 유통매장인 까르푸, 루루 하이퍼마켓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눈(Noon) 등에도 입점할 계획이다.

농심은 이번 사업으로 중동 현지에서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현지 맞춤형 스마트팜 패키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작물 연구와 가공, 유통판매 등 스마트팜 연관 산업을 모은 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 진출의 교두보 삼을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日, 엔화추세 전환 위해 5조엔 이상 자금 투입 직·간접 외환시장 개입”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양적 완화를 동반한 달러 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임기 도중인 2020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의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고 국채를 대규모 매입하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지지율이 떨어졌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엔화 가치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윤정 교보증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낮은 엔화 가치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 재무성이 엔화 추세 전환을 위해 5조엔 이상의 자금을 투입함이 알려지는 등 직·간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엔화 움직임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엔화 강세를 한시적인 이슈로 여길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엔화에 대한 정부 스탠스 전환, 내수 회복 기대, 달러 약세 등으로 절상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산단 임대규제 개선… 입주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산업부, 산업집적법 개정안 의결

산업단지 임대제도가 개선돼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 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깝고도 먼 스마트홈 시대... 삼성·LG, '보안강화' 승부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우려
보안시스템, 핵심 경쟁력 부상

삼성 '지식 그래프' 기술 확보
LG '엣홈' 개방형 생태계 결합

국내 우수 기업들이 '스마트홈' 사업 확장을 위해 보안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홈 IoT' 기술은 첨단통신기기(ICT)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 내 기기들을 서로 연결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흔히 '스마트홈'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홈 사용자는 아파트 월패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기기를 통제할 수 있고 외출 중에도 집안 온도를 조절하거나 보안 카메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홈은 인터넷 상용화와 함께 등장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스마트홈 기기 해킹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스마트홈 시장 확장은 지지부진한 모양새였다.

23일 메트로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스마트홈 보안 관련 기업을 각각 인수하는 등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2017년 394억 달러(약 54조7070억 원)에 그쳤으나 2023년 1348억 달러(약 187조1670억 원)로 약 3.5배 이상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8년에는 2316억 달러(약 321조692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英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인수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영국의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옥스퍼드대 교수 3인방이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지식 그래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식 그래프 기술은 데이터를 사람의 지식 기억 및 회상 방식과 비슷하게 저장·처리하는 기술이



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싱스'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LG 시홈 이미지. /LG전자

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인에 맞춰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적용해 보안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LG전자, 네덜란드 '엣홈' 지분 인수

LG전자는 지난 3일 네덜란드의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엣홈'의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지분 20%는 향후 3년 내 인수할 예정이다.

엣홈은 가전과 IoT 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홈 허브 '호미'를 보유한 기업으로, 유럽, 호주,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 엣홈은 자체 개발한 허브와 운영체제(OS)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마트홈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 제품인 호미 프로는 가전과 5만 개가 넘는 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 엣홈이 운영하는 호미 앱스토어에는 필립스, 이케아 등 전 세계의 브랜드 제품을 연결·제어할 수 있도록 1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앱)이 등록돼 있다.

LG전자는 엣홈의 개방형 생태계를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씬큐(ThinQ)와 결합해 많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활용 등 기술경쟁 치열

스마트홈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IoT보안 시스템' 등 보안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와 IoT를 접목한 지능형사물인터넷

(AIoT)을 활용한 스마트홈 구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AIoT 기반 스마트홈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패턴을 수집해 학습하므로 유출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 스마트홈 보안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삼성 녹스 매트릭스와 삼성 녹스 볼트의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삼성의 10억 대 이상의 제품에 적용 중이며, 7000만 대 이상의 삼성 기기를 관리하고 있다.

LG전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저장·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데이터 보안 시스템인 'LG 쉴드'를 적용한다고 CES 2024에서 공개했다. 또 화이트 해커를 활용해 IoT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민관,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등 도입 준비

» 1면 '내년 시교과서...'서 계속

네이버클라우드는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및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운영 체계를 수립하는 등 대규모 트래픽 처리 경험과 공공에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 AI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해외는 아날로그로 회귀중

해외에서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교육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폐지했다. 나아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하고

지면 교과서를 사용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등 아날로그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스웨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2016년 555점에서 2021년 544점으로 11점 떨어졌다.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 일부 나라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실 내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

68개월 27일을 투자했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 문화가 된다

“열정·도전 정신 본받아… 비즈니스·창업 생태계 발전 이루길”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

롯데장학재단, 유망 스타트업 발굴 내달 접수, 예선·본선 후 11월 결선 대상·최우수상 등 18개 팀 선정 수상자들에 1억 상당 지급 예정

“청년 기업가들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정신 중 가장 본받았으면 하는 건 열정과 도전 정신이다.”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23일 롯데장학재단은 서울 잠실 신격호 기념관에서 ‘제1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 개최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은 유망한 스타트업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롯데장학재단의 신규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정유신 서강대(경영학)교수, 이병찬 AC패스파인더 대표, 황조혜 경희대(호텔관광대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장혜선 이사장은 “재단을 설립하신 외조부의 성함을 덧붙여 여러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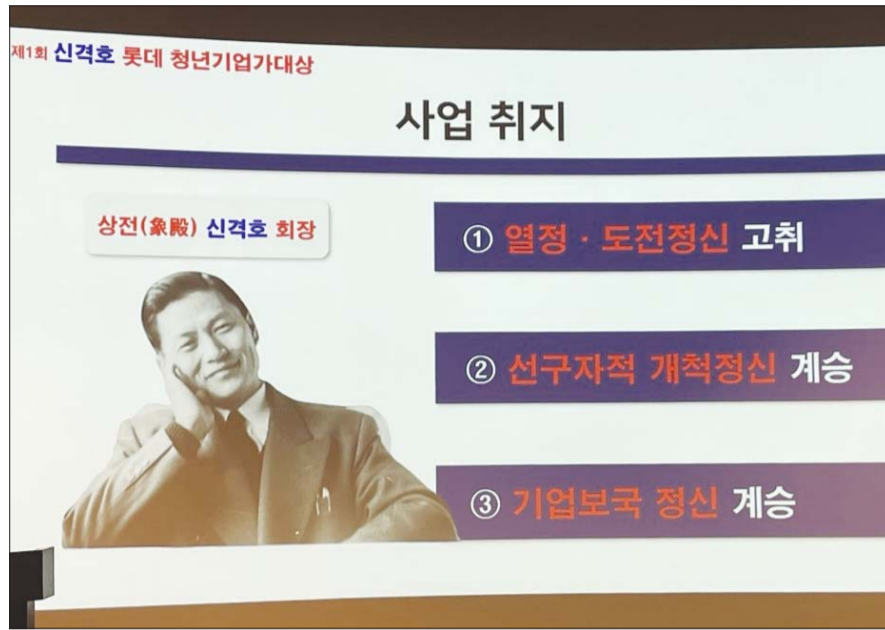
하고 나아가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이루길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 교수는 “이번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은 고신격호 명예회장의 선구적인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1세대 창업가로 한국의 성장을 이끈 주인공이다. 이에 현세대 기업가들이 이 같은 기업가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로 이를 보충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글로벌 창업가 ▲경기와 한계의 경계를 허물고 시대정신을 앞선 나간 혁신의 기업가 ▲최고가 되기 전까지 한우 물만 판 전문가 등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대 롯데타워, 호텔 등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재단은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업가정신재단, AC패스파인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을 공동주최하고, AC패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 사업취지 PPT.

/최빛나 기자

스파인더와 한국기업가정신재단이 대회를 주관한다.

오는 8월 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11월에 결선이 열린다. 본선과 결선 진출팀에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멘토링의 기회가 부여된다.

참가분야는 두 분야로 식품, 유통, 화학, 건설, 관광, 서비스, 금융분야인 1분야와 과학기술기반, 임팩트 등 2분야이며 모든 팀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과학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사

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겸비한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심사위원은 분야별 기업임원 14명이며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각 1200만원, 최우수상 각 700만원, 우수상 각 400만원, 장려상 각 200만원, 특별상 150만원 등 1분야와 2분야 총 18팀에게 약 1억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中, ‘저가 수출’ 장기화… “韓, 프리미엄·고부가 제품 전환 필요”

무협, 中 저가 수출이 미치는 영향 중국 수출단가 16개월 연속 하락 위안화 약세에 수출 채산성 양호

최근 중국상품의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수출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을 바탕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전년동월비 13.9%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4월에도 수출단가가 전년 동기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8.7% 늘어나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 더욱 확실해지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 채산성은 악화된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수출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기준치(100)를 넘어선 107.4로 2017~2021년 평균인

99.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2022년 10월 ~ 2024년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보고서는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과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선박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5대 IT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는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우리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프리미엄·고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배추 등 농산물 가격 내리니… 생산자물가 7개월 만에 하락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지난달 생산자물가 119.19 기록

배추, 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7월 소비자물가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9(2020년=100로 한달 전과 비교해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6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달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 물가가 전월 대비 2.8% 하락했다. 축산물(2.5%)이 올랐으나 농산물(-6.6%)과 수산물(-0.8%)이 내렸다.

세부적으로 축산물 중 돼지고기(12.4%)가 한달 전과 비교해 오르고, 농산물 중 배추(-45.3%)와 참외(-28.1%)가 내렸다. 수산물은 고등어 가격이 39.7% 떨어졌다.

공산품은 보험을 나타냈다. 음식료품(0.2%)과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1%)가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0.1%) 내렸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

기 중 플래시메모리는 2.6% 오르고, 휘발유와 제트유는 각각 4.4%, 6.1% 내렸다.

서비스는 음식점및숙박서비스(0.3%)와 운송서비스(0.2%) 등을 중심으로 0.1% 상승했다. 햄버거, 피자, 치킨 등 주 외식전문점은 2% 오르고 국제항공여객도 0.9% 올랐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2.9%) 내리면서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한편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24.77으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재료(-1.6%)가 내렸으나 중간재(0.2%), 최종재(0.1%)가 오른 영향이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18.82)보다 0.3% 높은 119.12(2020년=100)로 집계됐다. /뉴시스

다. 공급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지수로,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122.53으로 농림수산물(-2.6%)이 내렸으나 공산품(0.4%)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FACIAL RECOGNITION



ixi 챗봇

AI로 나만을 위한 맞춤 상담 제공



VOICE RECOGNITION



ixi 챗봇

김유쁨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에게 맞는 요금제 좀 추천해줄래?

김유쁨님의 데이터 사용량, 멤버십, 관심사를 분석하여 추천드릴게요.

AI 매칭 80%

데이터는 풍성하게, 요금은 저렴하게 맞춤형 혜택까지!

5G 프리미엄 레귤러 >

데이터 무제한 테더링 + 셰어...

고마워! 이걸로 요금...

VPN, PQC, Quantum Computing, Dedicated Line, Quantum Safe, AlphaKey, IDaaS

양자내성암호

세계최초 PQC 전용회선 상용화

AI로 통신생활을 바꾸고 있는 회사가 ● ● 공공기관의 보안기술까지 책임지고 있다

AI기술의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GROWTH LEADING AX COMPANY

* ixi 챗봇 내 생성형 AI 기술 순차 적용 중

韓, ‘당정관계 개선·당내 갈등·리스크 관리’ 등 과제 산적

‘총선백서’ 韓 책임 관련 분열 전망
野, 방송4법·채상병 특검 추진
이탈표 최소화에 당력 집중해야
尹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의 인사를 받고 있다. 결과는 한동훈 후보 당대표 당선.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았으나, 그에게 놓여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 대표의 우선 과제는 ‘총선 중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악화된 대통령실과 관계를 푸는 것이다.

한 후보는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당정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한 대표는 후보들간 네거티브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분열 양상을 치유하고 당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도 떠안았다.

특히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와 한 대표 사이 공방은 지지자들에게 옮겨가 지난 15일 충청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간 몸싸움이 일어나 당이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왔다.

원 후보가 제기한 ‘3대 의혹’도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복기하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총

선백서’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백서에 한 대표의 책임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이를 놓고 당장 당 안팎으로 분열 양상이 도드라질 예정이다. 총선백서는 전당대회부터 친윤석열계가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2대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만큼, 한 후보가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입법 추진 시도를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거대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

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산업계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담긴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를 노리고 있어, 한 후보는 당장 대야투쟁의 장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안’도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한 후보는 이탈표 최소화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축사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쟁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여권을 향한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한동훈 특검법’에 ‘여론조사팀 운영’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누적 득표율 91.7%... “‘尹 정권 조기종식’ 당심 반영”

이재명, 野 전대 당 대표 경선 독주
김두관·김지수 경쟁력 부족 지적
李, 당 밖에서도 지지기반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나선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 경선에서 일찌감치 90% 이상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또대명(또 한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같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데에는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1.70%다. 이는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을 합산한 수치로, 2022년 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종 득표율이었던 77.77%는 진작 넘어섰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지지도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또대명’ 기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날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에 대해 “(민주당이) 당심을 모을 수 있는 당원 참여 시스템들을 정비해 왔고,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두서는 안 된다’는 당심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 등의 당심이 이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에 대항해서 이 후보를 지켜줘야 한다는 당심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당원들의 의지나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그 이후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대(對) 정부 투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평론가는 상대 후보의 경쟁력도 지적했다. 그는 “김두관 후보는 대선 후보로도 당내 경선에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계파나 세력을 대변하지 않고, 김지수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분이기 때

문에 전체적으로 김두관·김지수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대해 “90%까지 안 나올 거라고 본다. (본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80% 초중반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A 의원은 이 후보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당 밖에서도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현재 탄핵 청문회나 검사 탄핵이나 정치적 이슈에 집중돼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만 집중돼 있으면 안 되고, 민생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내 비명계 세력을 끌어안는 리더십, 국민적으로는 중도 민심을 끌어내는 행보 등 리더십을 폭넓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는 넓은 리더십으로 작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尹, 체코 ‘원전특사’로 성태윤·안덕근 파견

(정책실장) (산업부 장관)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후속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했다. 최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

코 총리, 요셉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진서를 전한다”며 특사단이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전날(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사단은 성태윤 실장과 안덕근 장관 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오후 체코로 출발 예정이다. 특사단장은 성 실장이다. 피알라 총리와 특사단이 면담할 시에는 특사단을 포함해 한수원 사장, 실무진 등을 포함해 총 5명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에 정책실장이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단장으로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으로,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나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안전교육 확대

국적·비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대상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3일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국민통합위는 우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Frosty Delights

Sweet + + Cool

분홍백도빙수
14,000

팥빙수
7,000

밀크팥빙수
8,000



가상자산업계, 예치금 최고 연 2.5% 이자... 은행권 '긴장'

가상자산법 시행에 이용료 지급 코빗, 2.5%로 이용료를 가장 높아 빗썸 2.2% 업비트 2.1% 등 눈치전 은행권 파킹통장과 비슷해 주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으로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최고 연 2.5%의 예치금 이용료를 책정했다. 이용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주는 금액이다. 높은 이자 지급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작전으로 시중 은행 예·적금 이자율과 비슷해 은행권 고객 역시 관심을 갖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실명계좌 제휴 은행과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확정했다.

예치금 이용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 2.5%를 책정한 코빗이다. 이어 ▲ 빗썸(NH농협은행) 2.2% ▲업비트

(케이뱅크) 2.1% ▲고팍스(전북은행) 1.3% ▲코인원(카카오뱅크) 1.0% 순이다.

이용료 지급일은 거래소마다 시기가 다르다.

케이뱅크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농협은행과 제휴한 빗썸은 매일 밤 11시 59분 59초 원화 잔액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 신한은행과 제휴한 코빗은 매월 3번째 영업일에 지급한다.

카카오뱅크와 제휴한 코인원은 매일 밤 12시 원화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오는 10월1일 지급, 전북은행과 제휴한 고팍스는 분기별로 익월 10영업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예치금에 이자와 같은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다.

가상자산법 중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거래소의 이용료 지급이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돼 불법이었다.

거래소들의 이용료율은 1%대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뒤집었고 실제 지난 주말 이용료율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 연 1.3%로 내놓았는데 1시간 뒤 빗썸이 이용료율 연 2.0%로 공지했다. 이를 본 업비트는 약 30분 만에 2.1%로 상향 조정했고 빗썸 역시 상향해 2.2%로 추격했다. 거래소들간의 이용료율 공방전은 코빗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마무리됐다.

거래소들이 치열하게 이용료율을 정한 것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치금 비율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거래소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2억원을 예치한 고객은 분기마다 88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코빗 고객은 1개월 마다 35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1년을 봤을 때 업비트에서는 352만원, 코빗에서는 423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들의 연 2% 이용료율은 주요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2~3%)과 비슷한 수준으로 은행권 고객들 역시 가상거래소 예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만큼 이용료율도 기존 증권 대비 좀 더 짧은 주기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예치금 이용료율이 고객이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규 고객들이 더 많이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진 만큼 은행권 고객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isy2665@metroseoul.co.kr

카드 News



제휴기념식에 참석한 박성용 네스프레소 코리아 대표(왼쪽)와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 네스프레소와 컬래버 제휴 할인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네스프레소 신한카드'를 출시한다.

◆ 네스프레소의 글로벌 첫 제휴카드

신한카드는 네스프레소 코리아와 손잡고 '네스프레소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스프레소가 카드사와 손잡고 제휴카드를 출시하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양사는 카드 출시와 함께 브랜드 콜라보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용 네스프레소 코리아 대표와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에 위치한 '네스프레소 부티크 더현대 서울'에서 제휴기념식을 진행했다.

네스프레소 신한카드 '네스프레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경우 최대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며,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한번 이용할 때 5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다.

네스프레소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1만5000원, 해외 검용(Master) 1만8000원이다. 카드 서비스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 네스프레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여름휴가 준비 고객 패션·숙박 등 혜택

NH농협카드가 여름휴가 준비 이벤트를 진행한다.

◆ 패션, 숙박, 여행 관련 이벤트

NH농협카드가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신사(7월22일~8월4일) 6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9CM(7월18일~7월31일), W.CO NCEPT(7월15일~7월26일) 10만원 이상 결제 시 4000원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NH pay에서는 '더위 극복! 이벤트'가 열린다. 이달 말까지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비스포크 큐브에어 공기청정기(1명), LG디오스 와인셀러(3명), 배달의민족 상품권 1만원권(300명) 등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김주형 기자

교보생명, 유언대용·보험금청구권 등 자산신탁업 확장

신탁업 바탕 종합자산관리사 시동 생보업계, 보험금청구권신탁 주목

교보생명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신탁사업 경쟁 참전을 선언했다. 은행권이 주도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뿐 아니라 하반기 보험금청구권신탁까지 사업 확장에 나선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2007년 금전신탁에 이어 재산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에 맞춰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히 신탁업뿐만이 아닌 종합신탁업을 바탕으로 자산관리의 측면도 갖추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교보생명은 유언대용신탁업에

진출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금융사에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 시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로 상속과 증여 시장과 신탁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유언대용신탁 시장은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주도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말 유언대용신탁 수탁잔액은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 8800억원, 2021년 말 1조3400억원, 2022년 말 2조500억원, 2023년 말 3조1100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은행권이 주도하는 유언대용신탁 시장에 교보생명이 참전하면서 해당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올해 안으로 신탁 관련 상품을 선보이면서 본격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 첫 걸음을 내디딜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신탁까지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보험금청구권신탁으로 신탁업을 확장하고 고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전산 작업 등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준비가 된 상품도 있고 곧 출시될 상품들도 있어 이르면 모든 상품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도 바로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로 발생하는

보험금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이 되는 신탁을 의미한다.

특히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생보업계가 진출하기 위해 눈독 들이고 있는 사업 분야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9월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9월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반기 보험금청구권신탁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신탁 수탁자가 되면서 사망 시 보험금을 운용하고 수익자한테 지급하는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지속 판매해 온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신성장 분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DGB금융, 그룹 밸류업 전략방향 논의

시중금융그룹 밸류업 워크샵

DGB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iM뱅크 제2본점에서 지주 임직원이 참여하는 '시중금융그룹 밸류업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조직 혁신을 통해 시중금융그룹으로의 새로운 지향점을 마련하고, 그룹 밸류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iM 시대를 준비하는 지주회사의 역할과 지회사 관리 체계'라는 주제

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통해 시중금융그룹으로서 지회사 경영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어 주력 지회사인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생산성·효율성과 지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함께 갖춘 '뉴 하이브리드뱅크'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비은행 지회사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을 위해 그룹의 자본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과 브랜드 제고,



DGB금융지주 임직원들이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다. /DGB금융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한 분임 토의도 진행해 그룹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이끌어냈다.

DGB금융그룹은 이번 워크샵에서

도출된 전략과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시중금융그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핵심 지표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대한항공, 창사이래 최대규모 투자... '메가캐리어' 시대 연다

보잉社 중대형 항공기 50대 계약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장 참석 "지속가능 경영 위해 노력할 것"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본격적인 메가캐리어 시대를 앞두고 '퉁큰' 투자를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중 가장 진보한 기술을 적용한 중대형 항공기 50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만 약 30조원에 달하며 대한항공 창사 이래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다. 조 회장은 최신 항공기 도입으로 안전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2일(현지시간) '판버러 국제 에어쇼'가 열린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공항에서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30대(옵션 10대 포함) 도입을 위한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등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이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30대(옵션 10대 포함) 도입을 위한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계약을 통해 도입이 확정된 777-9과 787-10은 미주·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다. 향후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담은 포석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항공기를 주문부터 제작, 도입까지 약 5년가량 소요된다

는 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완료된 후 오는 2030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보잉 777-9 및 787-10 도입은 대한항공의 기단 확대 및 업그레이드라는 전략적 목표에 중요한 이정표

가 될 것"이라며 "항공기 구매 계약을 통해 승객의 편안함과 운항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OJ)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메가캐리어 탄생과 함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항공사들은 탄소 중립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항공기와 차세대 연료 도입을 통한 탄소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이 도입하고 있는 기체들은 미주·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로,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대한항공 기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777-9는 777 계열 항공기 중 가장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항공기로 평가받는다. 탄소복합소재로 이뤄진 날개가 기존 777계열 항공기보다 더 길어져 연료 효율을 10% 이상 개선했다. 운항거리

는 1만3000km 이상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전지역 직항 운항이 가능하다. 777-9는 777 계열 항공기 중 동체 길이가 가장 길어 통상적으로 400~420석 규모 좌석이 장착 가능하다.

787-10은 787 시리즈 계열 항공기 중 가장 큰 모델로 현재 운항중인 787-9 대비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다. 연료 효율성도 기존 777-200 대비 연료 효율이 25% 이상 향상됐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올해 3월 약 18조원을 투자해 에어버스의 A350-900계열 항공기 33대를 구매했으며 A321neo(neo) 50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항공기 기단 완성을 통해 오는 2034년까지 첨단 친환경 항공기 기단을 총 203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무렵까지 미국 DOJ로부터의 합병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까지 통과하면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ysw@metroseoul.co.kr YouTube

한화그룹·HD현대중, 'K-함정' 기술력 뽐낸다

호주 'IODS 전시회' 참가 "잠수함 등 수출 경쟁력 증분"

국내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호주에서 K-함정의 기술력을 알린다.

양사는 올 하반기 호주와 캐나다, 폴란드 등에서 진행될 해외함정 수주전이 예고된만큼 자사 기술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방산 업계는 전 세계 함정 시장 규모를 2033년까지 692억 달러(약9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4~26일(현지시간) 호주 퍼스에서 열리는 'IODS'(Indian Ocean Defence & Security) 전시회에 처음으로 동반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함정 건조 역량을, 한화시스템은 함정 전투체계 독자개발 기술과 해양 무인체계 역량을 알릴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호위함 3종과 잠수함 '장보고-III 배치-II'를 선보인다. 한화오션이 전시한 호위함은 호주 해군의 작전 요구 사항에 맞는 최신 무기체계를 장착했다.

한화시스템은 통합전투체계(ICS)와 한국형 구축함 통합마스트(KDDX I-MAST) 등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한화시스템은 무인수상정 해령(Sea GHOST), 대잠정찰용 무인잠수정(ASWUUV), 저궤도 통신위성(LEO Comsat) 등 해양 무인체계 설루션도 선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 2월 호주 정부가 공개한 '호주 해군 수상함 확정 건조 계획'에 포함된 호

위함 획득 계획에 발맞춰 최적의 맞춤형 설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실전 능력이 입증된 울산급 호위함 시리즈(울산급 Batch-I, II, III)를 알린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호주 현지 조선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호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안자(Anzac)급 호위함을 대체할 새로운 호위함을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방산업계가 잠수함, 호위함 등의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출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발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수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별도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日 상용차 전동화 시장 공략

이와사키그룹 전기버스 공급

현대자동차가 일본 상용차 전동화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아이오닉5 등 전기승용차에 이어 이번엔 상용차 시장이다.

현대차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이와사키그룹과 무공해 전기버스 '일렉 시티타운'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매의향서(LOI)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사키그룹은 일본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운수·관광 서비스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다.

현대차는 이번 구매의향서 체결을 통해 올해 4분기 일렉 시티타운 1호차 전달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총 5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차 전기버스가 일본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사키 요시타로 사장은 "현재 일본에는 중국산 전기버스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품질 신뢰도가 높은 현대차의 전기버스를 선택하게 됐



올해 4분기 일본 시장 공식 출시를 앞두고 지난 5월 시험 운행에 투입된 현대차 전기버스 '일렉 시티타운'.

다"며 "향후 야쿠시마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모두 EV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사키그룹은 일렉 시티타운을 '친환경 관광지'인 야쿠시마섬의 노선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일렉 시티타운에 이어 일본의 전기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상용 전기차 모델 투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이석희 "전동화 핵심은 배터리 성능 개선"

(SK온 CEO)

SK온 CEO 특강 "미래 위한 투자 아끼지 말아야"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CEO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특강은 'Envisioned Future, Together We Move Forward' (예정된 미래, 함께 나아가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사장은 후배들의 배터리 산업 관련 궁금증과 진로에 대한 고민에 경청을 나

누는 등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이 사장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동화는 예정된 미래로, 그 여정에서 핵심은 배터리 성능 개선"이라고 밝힌 뒤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온은 대규모 수주와 적극적인 증설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 졸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을 방문해 CEO 특강을 진행한 후 석·박사 과정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K온

업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8년 SK 하이닉스 대표 이사에 이어 2023년부터 SK온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경험해보세요"

플래그십 스토어 등 전시매장 확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전시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부산센텀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이크로 LED는 삼성만의 노하우를 담아 완성한 초고화질 디스플레이로, 영화와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를 감상할 때 실제 현장에 있는 듯 생생한 화질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수도권인 ▲삼성스토어 청담·대치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판교점·무역센터점 ▲더현대 서울에서 만나 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 삼성스토어, 백화점 매장 위주의 전시를 포함해 하만 럭셔리 스토어(롯데백화점 잠실점), 소더비 삼성갤러리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갤러리, 쇼룸,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제품 체험 공간을 다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

‘갤 버즈3’ 마감불량 등 품질 논란… 에어팟 반사이익 누리나

삼성, 사전판매 불량 교환·환불
제품 높낮이 차이·마감불량 하자
애플 신형, 카메라 탑재 등에 관심 ↑
개선된 착용감·디자인 혼합 예정

삼성전자의 신형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3’가 품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애플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전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버즈3의 마감 불량 등 품질 문제가 제기된 직후 사과에 나섰지만 고객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애플이 출시 예정인 신형 에어팟 시리즈는 품질개선에 주력한 것은 물론 카메라 탑재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 이탈한 고객을 애플이 흡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버즈 품질 문제, 공식출시 전 해결 ‘관건’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버즈3 사전판매 불량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을 약속했다. 지난 19일 삼성닷컴에는 사과문과 함께 “24일 국내 공식 출시 이전까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꼼꼼히 점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공지가 게시됐다.



갤럭시 버즈3 화이트 색상.



/삼성전자 애플 홍대점.

/뉴시스

문제가 된 갤럭시 버즈3는 품질 불량 지적을 받고 있다. 양쪽 제품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거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LED에서 불빛이 미치는 위치나 밝기가 양쪽이 다른 경우가 보고됐으며 이어팁이 쉽게 찢어진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는 전자 대비 이번 신형 디자인이 대폭 변경되면서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5년만에 처음으로 갤럭시 버즈의 디자인을 변경했다. 삼성은 통화 품질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 조롱해왔던

에어팟의 ‘콩나물’ 디자인을 닮은 모양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검수인력을 늘려 품질 점검 등을 진행 중인데 오는 24일 국내 공식 출시 전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에 갤럭시 버즈3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애플의 신형 에어팟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갤럭시 시리즈와 에어팟 시리즈는 가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호환 가능해 단말기와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품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다.

◆애플 신형 에어팟, 개선된 품질·카메

라 탑재’ 기대

애플은 올해 전작과 대폭 달라진 4세대 에어팟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애플이 2세대 에어팟, 3세대 에어팟 판매를 중단하고 4세대 에어팟 일반 버전과 고급형 버전 2개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팟4는 짧은 기둥을 포함해 에어팟3와 에어팟 프로의 디자인을 혼합한 모습을 특징으로 할 예정이다. 에어팟 프로처럼 교체 가능한 이어팁을 제공하는 않지만 개선된 착용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 모델과 고급형 모델은 노이즈 캔슬링 지원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애플이 에어팟4 생산량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올해 에어팟4를 애플이 2000만~2500만 대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애플 사상 최대 규모의 에어팟 생산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은 전작인 에어팟 3세대와 비슷한 25만원 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급형 에어팟 4세대는 조금 더 비쌀 전망이다. 에어팟 프로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어팟 프로 2세대는 35만 9000원이다.

애플은 특히 오는 2026년 신형 에어팟에 적외선(IR)카메라도 탑재된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목표는 카메라 달린 에어팟을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해 공간 음향이 강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버즈는 삼성전자의 최대 규모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4일 공식 판매분부터는 검수를 마친 제품만 판매될 예정이며 해외서는 사전 예약 파매는 진행중이지만 배송을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전자, 고객 제안 ‘업가전 아이디어’ 1.6만건 돌파

2년간 한·미 이용자 제안 아이디어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신기능 반영
업가전 출시 뒤 씽큐 앱 연동 늘어나

LG전자가 2022년 ‘업(UP)가전’을 선보인 이후 2년 만에 한·미 이용자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1만6000건을 돌파했다.

23일 LG전자는 업가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 총 24종의 업가전을 출시하고 업그레이드 콘텐츠 426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LG 업가전은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업그레이드로 기능을 지속 추가하면서 이용자에게 점점 더 맞춰가는 가전이다. LG전자는 업가전을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직접 제안하도록 LG 씽큐 앱에 아이디어 제안 코너를 마련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업가전 해외 브랜드인 ‘씽큐 업’을 런칭했는데, 미국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소통 채널을 통해 들어온 업가전 아이디어 제안은 지난 6월 기준 1만6000건을 넘었다. 아이디어 제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들어온 총 제안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

제안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한 대표적 기능으로는 집안 어디서나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도록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가전에 적용한 ‘현재 시간 표시’, 미세먼지와 습도에 맞춰 스타일러 동작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스마트케어’, 플라스틱 용기를 변형 걱정 없이 세척하는 식기세척기의 ‘플라스틱 코스’ 등이 있다.

세탁이나 건조를 끝내고 통을 주기적으로 회전시켜 세탁·건조물의 구김을 줄여 주는 ‘종료 후 세탁물 케어’, 반려동물의 배변이나 외출시 진흙, 잔디 등

으로 생긴 생활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세탁기의 ‘펫케어 코스’도 호응이 높다.

업가전 출시 뒤 LG씽큐 앱에 가전 제품을 연동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LG 씽큐 앱에 제품을 연동하는 등록률은 출시 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태인 LG전자 H&A스마트제어연구소장은 “고객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부터 새롭게 제안하는 아이디어까지 귀 기울여 고객 경험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차별화된 공감지능(AI) 가전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왼쪽부터) 파브리치오 보자니(Fabrizio Boggiani) 레오나르도 항공전자·임무장비 총괄부사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루카 피콜로(Luca Piccolo) 레오나르도 항공사업부문 부사장,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

/한화

한화시스템

AESA 레이더 공동 개발

한화시스템이 미래 수출 주력 제품인 AESA 레이더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2일(현지 시각)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전시에서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와 ‘공랭식 AESA 레이더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최초’ 공랭식 AESA 레이더 개발사인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랭식 AESA 레이더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공격기 ▲소형 정찰기 ▲각종 무인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여러 AESA 레이더 라인업을 확보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노린다.

‘공랭식 기술’은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랭식과 달리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더를 소형·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박대성 기자 iunmids@

현대차, 인니에 ‘EV 충전 얼라이언스’ 구축

민간 충전 사업자 6개 업체와 동맹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현지 기업과 동맹을 구축한다.

현대차는 19일(현지 시간) ‘가이킨도 인도네시아 국제 오토 쇼 2024’에서 인도네시아 민간 충전 사업자 6개 업체와 ‘현대 EV 충전 얼라이언스(연합체)’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대차 전기차(EV) 고객은 ‘마이현대’ 앱으로 별도의 회원 가입, 결제 수단 등록 없이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타 업체의 충전 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앱으로 여러 업체의 충전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 및 결제할 수 있는

로밍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얼라이언스 구축에 참여한 7개 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총 429개소 696기의 EV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민간 EV 충전기의 약 97%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EV 신차 고객에게 현대 EV 충전 얼라이언스 소속 업체의 충전소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충전량 50kWh를 매월 제공하는 ‘EV 충전 서비스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EV 충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충전량은 오는 8월부터 사용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에코프로비엠, 나트륨이온전지 양극재 개발

산업부 지원 과제 주관사 선정

삼원계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을 선도해 온 에코프로비엠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나트륨이온전지(SIB) 양극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과제인 ‘나트륨이온전지 양극소재개발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한국전기연구원, 동아대학교, 성균관대학교도 참여하는 산학 연구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비로 52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 기관 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6억원이다. 향후 4년 동안 기술개발 협력이 진행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집값상승·트럼프 우세... 건설株, 국내외 업황 호재 연이어

금리인하 기대... 서울 아파트 가격 ↑
트럼프, 러-우 전쟁 조기종식 공약
재건사업 참여로 건설수주 수익 전망
불확실성 잔존... 회복속도 더딜 듯



한국부동산원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7주 연속 올랐다. /유투이미지

국내 건설주와 건설지수가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인한 부진을 딛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확률까지 올라가면서 건설주에 기대감이 높아진 탓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건설주로 꼽히는 삼성E&A의 이날 종가는 2만5100원으로 올 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 6월 18일 2만1950원보다 약 14.7% 올랐다. 현대건설도 연중 가장 주가가 낮았던 지난 4월 17일 3만1350원보다 3만2300원(23일 종가)으로 올라 약 3.1% 상승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건설사의 2분기

실적과 달리 주가는 상승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E&A의 영업이익의 예상치는 전년 동기보다 41.6% 감소한 2010억원으로 예상된다. 매출도 2조5455억원으로 8.6% 줄고, 당기순이익은 1451억원으

로 4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19일 2분기 실적을 내놓은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은 14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4.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1461억원으로 31.2% 줄었다.

그럼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서울 주요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연일 일어나자 건설

주기도 오르는 형국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7주 연속 올랐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기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비롯됐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을 두고 "낮은 주가 부담과 금리 인하 기대감 형성을 고려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건설 관련 업종 26개로 구성된 'KRX 건설지수'도 상반기 부진한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4.95% 오르며 상반기 부진을 만회해냈다.

아울러 건설주는 미국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며 '수혜주'로 꼽히기도 한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약한 상태다. 이는 국내 건설

사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해 건설 수주 수익 등을 거둬 건설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설주가 국내외 건설 업황에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며 상승 중이지만, 증권가에서는 투심과 별개로 추가 회복속도와 정책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해외사업 등의 다양한 모멘텀 요소에도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원가율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를 동시에 누르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회사 펀더멘털 개선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추가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판단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8월 중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이 오른다고 주택주를 매수하기엔 지방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화자산운용 “‘PLUS ETF’로 시장 질적성장 집중”

15년 만에 브랜드명 교체로 차별화
엔비디아·인프라 총합 투자 콘셉트
10월 새롭게 출시할 상품도 예고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화자산운용 'PLUS ETF 브랜드 출범식'에서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전략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ETF 간 판을 교체하는 등 리브랜딩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 'RISE'로 ETF 명칭을 변경한 KB자산운용에 이어 한화자산운용도 'PLUS ETF' 브랜드를 선보였다.

23일 한화자산운용은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PLUS ETF 브랜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PLUS는 ETF 시장 발전을 견인하면서 가치를 더해 나가겠다는 우리 한화자산운용의 전략적 의지를 담은 브랜드"라며 "우리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신기술

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과 이를 사업화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은 15년 만에 ETF 브랜드명을 기존 'ARIRANG'에서 'PLUS'로 바꿨다. 'PLUS'는 고객의 자산을 지키고 일상을 넘어선 가치를 실현해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브랜드 변경 이후 새롭게 출시하는 ▲PLUS고배당프리미엄위클리콜옵션 ▲PLUS일본엔화초단기국채 ▲PLUS글로벌AI인프라 등도 공개했다.

국내 ETF 시장이 15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주자 자산운용사들도 ETF 리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투자자산운용이 ETF 브랜

드명을 'ACE'로 변경하면서 성과를 보인 영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투운용은 19일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 10조7811억원을 달성하면서 연초(5조9415억원) 이후 81.45% 증가했다.

다만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 부문장은 "ETF 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반추해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화자산운용부터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브랜드명을 변경했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 ETF 성장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KB자산운용도 8년 만에 ETF 브랜드를 'RISE'로 바꾸면서 ETF 사업의 리뉴얼을 알렸다. 같은 날 KB자산운용 역시 'RISE ETF'의 첫 상품으로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 ETF'를 내놓았다. 두 자산운용사 모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AI 관련 상품을 ETF 리브랜딩과 함께 간판으로 내걸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AI 레볼루션에 올라타기 위한 상품들은 많을수록 좋다"며 "최소한 3~5년까지는 AI가 메가 트렌드로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밸류에이션 불만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I에 탑승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화자산운용의 차별점으로는 엔비디아와 인프라 분야를 총합해 투자하는 콘셉트를 꼽았다.

이날 한화자산운용은 오는 10월 새롭게 출시할 상품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금 본부장은 "S&P500지수는 현존하는 상품중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품이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갈증도 많은 상황"이라며 "미국 대표지수 투자방식을 재정의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신하은 기자 godhe@

예탁원 상반기 M&A 63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63개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1개사(17%), 코스닥시장 52개사(83%)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개사로 가장 많았다.

M&A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37.6% 늘어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양수도를 사유로 101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에스케이엔터가 31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주식교환을 사유로 연우가 488억원, 합병을 사유로 케이지에코솔루션이 64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원관희 기자 wkh@

엔비디아 등 기술주 레버리지 ETF 매수세

해외주식 Click
반도체 중심 기술주 조정 단기간 전망

최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등 기술주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장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조정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7월 16~22일)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2억4098만달러가 몰렸다. 이 ETF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한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 상승 시 2배 수익을 얻는 레버리지 ETF도 상위

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학개미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배 ETF(TSLI)를 7141만달러 어치 매수했고, 그레닛세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NVDL)를 6606만달러 어치 사들였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는 테슬라(7328만달러), 애플(7232만달러), TSMC(2571만달러)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글로벌 IT 대란의 여파 등 반도체 관련 약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9%가량 하락했으며, 엔비디아, 테슬라 등은 8%, 5%가량 떨어졌다. 시장에선 곧 급락한 기술주들의 강한 반등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기업 상반기 주식발행 금액 85.5% 늘어

대형 IPO·대규모 유상증장 영향
회사채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

대형 기업공개(IPO)로 올 상반기 주식을 통한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이 전년 동기 대비 85% 이상 증가했다. 회사채도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행됐다. 반면 CP·단기사채를 통한 조달은 줄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에 따르면 주식·회사채 총발행액은 138조 322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늘었다. 주식 발행 금액 부문은 전년 동기 2조 7354억원 대비 85.5%(2조 3400억원) 늘어난 5조 75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대형 IPO와 대규모 유상증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IPO 규모는 54건 이뤄

졌으며 1조5662억원으로 전년대비 57% 늘었다. 특히 코스피 상장된 HD현대마린솔루션과 에이피알이 상반기 IPO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액은 7400억원을 넘긴 바 있다.

또한 유상증자는 23건, 3조50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건, 101%(1조7706억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133조 2470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회사채 잔액 규모는 658조 1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일반회사채는 319건, 33조 5195억원이 발행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161억원(3.1%) 증가한 수치다. 신규 발행이 만기도래금액인 29조 1280억원을 상회하며 지난해 상반기 이후 순발행 기조를 유지 중이다. /허정윤 기자

틀 깬 인디게임사에 투자... 게임산업 신성장 동력 찾는다

웹젠, 블랙앵커 스튜디오에 투자 총 10억 규모... 지분 16.67% 취득
스마일게이트-메타크래프트 맞손
인디게임 지원, 창작 생태계 조성



Chat GPT를 통해 생성된 인디게임사 관련 이미지.

게임 시장 성장세가 둔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디게임사들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 인디게임사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게임 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게임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디게임 시장이 앞으로 더 주목될 전망이다.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개발사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844억 달러 규모로 2021년 대비 4.3% 감소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

내 대형 게임사들 또한 신작 흥행을 거둔 몇 개의 게임사를 제외하고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사들은 인디게임사를 신성장동

력의 마중물로 보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게임 전문 기업 웹젠은 인디게임 개발사인 블랙앵커 스튜디오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총 10억원 규모의 투

자를 단행하고 16.67%의 지분을 취득한 것.

블랙앵커 스튜디오는 시니어 개발자들로 구성된 2020년 첫 발을 내딛은 인디게임사다. 2021년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에서 제작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웹젠은 “블랙앵커 스튜디오에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RPG(역할수행 게임) 장르뿐 아니라 인디게임을 발굴하는 노력도 이어간다”며 이어 “올해 대표 이사 직속 ‘유니콘 TF’에서 게임 장르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 산업 트렌드가 기존 각사에서 강점으로 내세워오던 MMORPG 인디에 이제 장르 다양화와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게 트렌드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며 투자 유치 계기를 전했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인디게임사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 초 스마일게이트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 메타크래프트와 인

디게임 지원과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사 업무 협약에 따라 메타크래프트는 자사의 콘텐츠 IP가 게임 등의 새로운 창작물의 원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한다. 스마일게이트 또한 해당 IP를 검토하여 게임 콘텐츠화를 통한 실질적 이익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인디게임에 대한 활발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디게임 전시회에 참여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 부문의 신규 인디게임을 선보인 바 있다.

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인디게임은 K-게임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뛰어난 독창성과 창의성을 보유한 인디게임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맞손

중기부-농식품부, 업무협약
삼성전자서 스마트공장 지원 맞아
K-푸드·농기자재·펫푸드 등 포함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K-FOOD+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왼쪽부터)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K-Food(푸드), 농식품·농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지원은 삼성전자가 힘쓰기로 했다. 중기부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와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시장 개척, 금융 및 유통지원 등을 포함한 ‘K-Food+’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Food+’는 K-푸드 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외에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사업 참여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품제조업 제조혁신’과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2가지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식품제조업 제조혁신’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금융·재정지원, 제조

혁신 노하우 전수, 해외진출·판로개척 등 식품제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민간 협업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은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수출지원, 해외거점 상호활용, 제도 및 정책공유 등을 위해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오영주 장관은 “K-Food+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식품 개발, 제조·유통 과정 효율화, 글로벌 진출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식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삼성, 농협 등 민간과 함께 약 4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60억원을 출연해 4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0개 기업을 선발하고, 이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시 우대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불복절차’ 생긴다

중기부, 관련법 개정안 국회 의결
실증특례 불허 ‘재심’의 요청 가능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허가를 못받으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메뉴판식 특례(203개)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한다.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절

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기술 검증이 불허됐을 경우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한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외 개정사항으로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김승호 기자

기보, 경제활력 회복 정부 정책지원 소개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열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기보는 23일 경기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임원, 부장, 전국 영업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정책 뒷받침을 위한 기보 역할 확대 전략’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열었다.

워크숍에선 정부가 상반기 발표한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소개와 기보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융자형 R&D 추진 계획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구축 방안 ▲택소노미 평가보증 운영 방안 등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도 진행했다.

특히 워크숍에선 서울대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 기보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공공·민간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공기관의 AI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보는 올해 미래전략산업 및 스케일업, 청년창업, 수출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총 28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성장분야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스타트업 공동육성 등 중소기업 데이터 경영지원

중진공-특허정보원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특허정보원과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한국특허정보원과 데이터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재산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유 ▲기술개발, 경영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교육 추진 ▲지식재산서비스업 영위 우수 스타트업 공동육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

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그간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해온 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bigdata.kosmes.or.kr)’를 적극 활용한다. 중진공 비즈패스파인더에 특허정보원이 보유한 특허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관련 통계, 성장경로 예측, 맞춤형 정책사업 추천 등 기업 경영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산업 기동대’ 2분기 710회 소통 지방·산단 등 현장애로 17건 해소

#1. 산업단지애로 입주해 있는 A기업은 여름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산업단지공단 합동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장마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 내년 국내 최초로 8인치 전력 반도체 양산을 계획 중인 B기업은 실증(신뢰성 등)을 위한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애로 전력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제품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분기 ‘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기동대)’ 운영을 통해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규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기능별로는 간담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월부터 현장방문 실시 애로해소·정책과제 발굴 추진 재정·세제 30건 등 82건 발굴 “기업과 소통, 불합리 규제 혁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를 진행하며 산업계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 사항은 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 등 총 82건이다.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 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틸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청정수소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더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 에너지화 박차

SK에코플랜트와 연구 협력 체결 AI 소각로 등 신기술 운영 기법 개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24일 SK에코플랜트와 폐자원 에너지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3일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폐자원 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소각로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시설 운영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핵심기술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로 폐자원 에너지 연구 분야의 최신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인적 자원 교류 협력 ▲탄소중립 이행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실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가진 연구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폐기물 에너지화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육아휴직 눈치 보지 마세요”

고용부,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모델 구축 협업 인재채움뱅크 통해 대체인력 지원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이 진행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지 내에서 적극적인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문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인재채움뱅크 등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대표이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도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기관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4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계하고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맞춤형 대체인력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 모든 산업단지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단지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자치단체·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체코 신규원전사업 계약 위해 총력 대응

한수원, 최종 계약 협상대응TF 발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3월 예정인 체코 신규원전건설 최종 계약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한수원은 23일 체코 신규원전사업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협상대응 TF를 지난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계약협상 절차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TF는 총괄, 설계, 사업 및 공사 등 각 분야별 한수원과 협력사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했다.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협상대응 TF는 체코 발주사(EDU II)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등 신속하고 꼼꼼한 계약체결을 위해 협상의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

앞서 한수원은 계약체결 이후를 대비한 ‘체코건설준비센터’를 지난 18일 신설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체코건설준비센터는 계약 즉시 착수해야 할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사전 발족했으며, 이를 통해 계약체결 이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협상대응 TF 실무진들은 이른 시일 내 체코 발주사와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해 계약협상 일정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체코 발주사와 세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2025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고양이 11만 마리 버려졌다

농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실태조사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반려동물 수가 11만 마리에 달했다. 구조된 11만 3000마리 중 2만 마리(18%)는 안락사 처리됐다. 작년 기준 누적으로, 반려견·반려묘의 등록 개체수는 328만 6000마리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등이 담겼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최근 3년째 11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엔 11만 3100마리가 유실·유기동물로 발견돼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2년에 비해 0.3% 줄어 들었다.

지난해 지역별 유실·유기동물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은 588마리가 구조됐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34.2%에 달한다. 이어 충북 4562마리(8.3%), 충남 8742마리(8.2%), 서울 5175마리(6.4%), 대구 4555마리(5.4%), 전북 9084마리(3.5%), 전남 9703마리(3.4%)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구조된 반려동물 중 4만 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다. 또 3만 1000마리(27.6%)는 자연사했고, 2만 마리(18.0%)는 안락사 처리됐다. 1만 5000마리(13.3%)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다.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는 전년도 305만 4000마리 대비 7.6% 늘어난 328만 6000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27만 1000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

개는 지난해 25만 7989마리가 등록됐다. 등록마리수로 놓고 보면 전년대비 3만 2969마리(-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는 전년 1만 1639마리보다 1545마리 증가한 1만 3184마리가 새롭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의 경우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지난해 외장형 신규 등록은 13만 2000마리,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신규 등록은 12만 5000마리로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추석 성수기, 도매업자 한우 구매한도 상향

농식품부, 한우 수급동향 점검

정부가 한우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추석을 앞두고 도매업자 등의 구매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3일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오는 추석 성수기에 평시보다 한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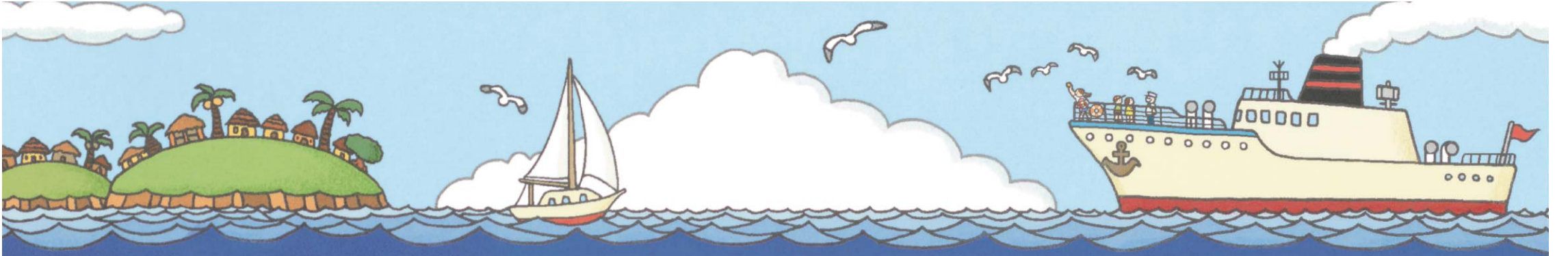
정부는 또 적정가격 매입과 분산, 도·소매 가격 연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공판장 경매사 등과 만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적절한 한우가격의 평

가와 경락사 결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처에서 한우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통한 가격 선도기능 활성화를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색다른 감각의 이머시브 뮤지컬
세계 최초 그랜드 오픈

뮤지컬 바다

100

총 짜리 짝

©Toshio IWAI/ KAISEI-SHA

24.07.06(토) ~ 08.15(목)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

Original Toshio Iwai

주최, 제작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케팅 에이전시 컴퍼니 예매 인터파크 티켓 문의 02-766-9001

목포시,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 '전국 1위'

전년비 123% 늘어... 7691만달러
가공기업 지원·해외마케팅 집중
수산물수출업 고부가가치와 박차

목포시(시장 박홍률)의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의 상반기 김 수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123% 증가해 7691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처음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시장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건강식에 대한 인식 또한 향상되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김은 올해 상반기 5억30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김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시장 주도를 준비해 왔다.



목포시 수산물수출단지 조감도.

/목포시

목포시는 (재)목포수산물수출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제1호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산업 특화 전략에 불씨를 당겼다.

센터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AI기반마른김품질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됐고, 앞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기업과 3년간 45억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시는 수산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한층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을 비롯한 수산물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중심에 지난 5월 말 착공한 '수산물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수산물수출단지는 부지 28,133㎡의 대양산단 내에 사업비 1천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6,612㎡로 2개동이 건립된다.

수산물수출단지 내에 들어설 국제 마른김거래소도 목포시가 주력하

는 사업 중 하나이다.

마른김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할 거래소를 조성하게 되는데,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전국 최대 규모인 739.5㎡의 거래소와 국제회의실, 바이어 상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 제고와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거래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고부가가치 김산업 특화에 차근차근 준비해온 덕에 2024년 상반기 김 수출액 역대 최고치 경신과 처음으로 전국 1위의 수출액 달성이 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년간 고부가가치 김산업 육성에 노력한 결실이 나타나 기쁘다. 우리시 김산업 특화 도시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도약으로 고부가가치 수산물수출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인니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파견

경남도는 도내 조선해양분야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2024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을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파견한다.

경남도는 아세안 수출시장의 잠재 바이어 발굴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도내 조선해양 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10개사를 모집했다.

무역사절단 파견은 2019년 한(韓)-아세안 해사주간 행사에서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아세안 7개국 조선해양·방산 분야 협회 간 체결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6개국 바이어 10개사와 제품 전시회와 1대1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진다. /함원(경남)=이도식 기자

밀양시

지자체·대학 등 7개 기관과 협력

밀양시는 지난 22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동부 경남 지방자치단체·대학 등 7개 기관과 함께 '동부 경남 지자체-대학 협력 및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경남 서부권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동부권 3개 지자체와 5개 대학이 모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나노·의생명·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산·학 협력 촉진 등 동부 경남의 발전과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함평군-aT

농식품 수출·저탄소 식생활 확산

전남 함평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난 22일 함평군청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저탄소 식생활 동참으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 농수산식품의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소비 촉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협약식에서 함평군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수출 지원을 건의하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지구 및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군

공직자 청렴 토크콘서트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2024 공직자 청렴 토크콘서트」를 7월 22일(월) 14시부터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기존의 경직된 청렴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청렴 관련 문화공연을 즐기며 자발적 청렴마인드 고취와 조직문화 개선하고자 진행됐다.

영양군은 현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영양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등 32명을 대상으로 '갑질 금지 교육' 및 '청렴 실천 서약식'을 통해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4 공직자 청렴 토크콘서트를 통해 직원 여러분의 청렴성 제고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영 웰링턴칼리지 부산캠퍼스 설립 '맞손'

부산시, 외국 교육기관 유치 성과

부산시는 22일 오후 시청에서 영국 웰링턴칼리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웰링턴칼리지 인터내셔널 부산 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웰링턴칼리지 임원진,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시와 세계적인 명문 외국 교육 기관인 웰링턴칼리지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명지국제신도시에 '웰링턴칼리지 인터내셔널 부산 캠퍼스'를 설립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박 시장을 필두로 시가 세계적 명문 외국 교육 기관을 부



왼쪽부터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펠리시티 컬 웰링턴칼리지 이사. /부산시

산으로 유치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결실이다.

지난해 9월 박 시장이 부산을 처음 방문한 웰링턴칼리지 임원진과 면담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후 디지털경제실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올해 상반기 영국 웰링턴칼리지를 직접 찾아 협의하는 등 부산 캠퍼스 설립을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의령군, 유스호스텔로 지역경제 활성화

2026년 6월 준공 예정

경남 의령군에 유스호스텔이 생긴다. 의령군은 지난달 설계 공모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을 시작해 2026년 6월 유스호스텔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의령 유스호스텔은 총면적 4000㎡, 지상 4층 규모로 37개 객실에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회의와 학술대회 등을 열 수 있는 대회의장이 만들어진다. 위치는 의령읍 하리 옛 5870부대 5세대 부지로, 특히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환경 1km 안에 있다.

의령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71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66억원을 들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

이번 유스호스텔 건립은 오대완 군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다. 미래교육원이 의령에 들어서는 게 확정되면서 외부에서 의령으로 온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대완 군수는 6년 넘게 흥물로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건물을 처리하고 미래교육원 주변 숙박시설이 없는 불편 사항을 동시에 해결했다.

각종 대회·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의령친환경야구장은 동계전지 훈련장으로 급부상했지만, 숙박 문제로 매년 외면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클 전망이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산청군은 지난 2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복음만드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과 118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청군

산청한방향노화산단 118억 규모 투자

1.7만㎡ 부지에 2027년까지 투자
122명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조

산청군이 산청한방향노화산단 투자 협약을 유지했다.

군은 지난 2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복음만드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이하복만사)과 118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조은우 복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복만사는 산청 한방향노화일반산업단지 일원 1만 7730㎡ 부지에 2027년까지 약 118억원을 투자

하고 최대 122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협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청 청정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금액과 최다 고용 인원 창출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산청군은 올해 상반기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해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이번 투자 협약을 포함, 5개 업체 314억원의 투자 금액 유치 및 16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이뤘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이강덕 '포항의 새로운 도약' 특별강연

(포항시장)

첨단산단 선정 등 성과 뽐내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2일 포항 지역발전협의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및 포항시의 정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는 150여 명의 회원들이 자리했으며, 이 시장은 포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의 첫 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선조들과 포항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제철보국 도시인 포항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지·바이오·에너지 신산업 도시로 성장 중이라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포항이 당면한 과제와 대한민국의 견인하는 포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어려움 속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서 이차전지, 바이오 2개 분야에 전국 최초 지정된 것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선정 등의 성과를 이뤄낸 포항의 저력을 강조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제과 중심 글로벌 확장 총력... 오리온, 연매출 3조 노린다

경쟁력 강화·설비투자 나서

오리온이 본업인 제과 중심의 외형 확장으로 올해 연매출 3조원을 노린다. 제품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 상황에 따른 영업전략 실행과 지속적인 설비 투자에 나선다.

오리온은 지난 2월 초코파이 출시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마시멜로 대신 크림을 넣어 만든 '초코파이 하우스'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케이크 사이에 우유 크림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했다. 특히 크림에 초코·딸기잼을 넣어 만든 마블링 크림이 진하고 풍부한 맛을 선사한다.

이 제품은 출시 4개월 만에 날개 기준 240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 누적 판매량은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 200만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이다.

오리온은 계절마다 제철 과일 콘셉트로 딸기, 수박 등 시즌 한정 제품을 내놓고 있다. 또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해외 시장에서도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총 25종의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있다.

오리온은 올해 중국 법인에서 영업력 강화를 통한 성장에 집중한다.

오리온은 올해 1분기 한국 법인 매출은 2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성장했으며, 같은기간 중국·베트남·러시아 법인 매출은 4751억원으로 전년동기(4177억원)보다 13.74% 증가해 신장률이 더 높았다.

이들 해외 법인 매출이 전체 매출 748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5%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비 16.0% 성장한 3064억원을



다터유 제주용암수

1분기 국내 매출 2716억 9.5% ↑ 해외 매출 4751억 13.74% 성장

200억 투입 중 선양공장 연내 완공 베트남 하노이 3·4공장 건설 순항

충북 진천에 5.8만평 부지 확보 생산공장·포장재 통합센터 추진

기록해 같은 기간 한국 법인 매출 2716억원을 넘어섰다.

중국 매출이 성장한 데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간접영업체제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중국은 넓은 영토와 복잡한 유통시장의 특성상 경소상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간접영업체제가 효율적이다. 경소상은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뒤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며 이윤을 창출한다. 오리온은 중국 내 직접영업 비중을 낮춰 인건비와 판매관리비를 절감하는 한편, 경소상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산 인프라도 강화한다. 중국 선양시에 2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감자 플레이크 공장은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감사 플레이크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감자칩 생산 등 효율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초코파이 하우스 2종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하노이 여류 부지 내 생산동을 증축하기 위해 하노이 3공장 부지를 매입했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하노이 4공장 부지도 확보했다.

베트남은 초코파이 오!스타 등 증량을 단행한 주력 제품의 매출을 확대한다. 오리온은 지난 1995년 일찌감치 베트남에 수출을 시작해 기존 주력 제품인 초코파이를 비롯해 쌀과자, 양산빵, 견과류 카테고리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며 시장 확대를 지속 중이다.

러시아 법인에선 새롭게 내놓은 젤리 브랜드를 일찍이 시장에 안착시키고 몰드 케이크 제품을 연내 선보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충북 진천에 5만 8000평 부지를 확보하고 착공을 목표로 생산공장과 포장재 공장, 그리고 물류센터를 한곳에 모은 통합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다소 부진했던 생수 사업도 중국 물 시장 진출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리온은 2019년 8월 제주시 구

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 '오리온제주용암수'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프리미엄 생수 '다터유 제주용암수'를 선보였다. 국내 생수 시장에서는 점유율과 매출에서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오프라인 생수 소매시장 점유율은 제주삼다수가 40.3%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가 13.1%, 농심 백산수가 8.3%에 집계됐다. 오리온에서 자체 집계한 제주용암수는 약 2%다.

올해는 본격적인 중국 물 시장 진출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올해 중국 수출 목표량은 5000만병으로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수출과 판매가 시작했다. 2025년에는 현지 수요에 맞춰 제품을 다양화하면서 물량도 두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소비자들은 건강 인식에 대한 강화로 수원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리미엄 생수, 천연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터유 제주용암수의 취수원과 성분이 경쟁력있는 평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마트24가 매월 24일 진행하는 '24데이' /이마트24

이마트24 햇반 작은공기 2+4 등 오늘하루 '24데이' 할인

이마트24가 오는 24일 하루동안 '24데이'로 가격 할인 행사를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의 24데이에는 행사카드(BC카드)로 결제 시, 하겐다즈딸기 바/미니컵(정상이 각 5900원)을 59% 할인된 2400원 균일가에 제공하며, CJ햇반작은공기(130g)를 2개 구입 시 4개를 더 주는 2+4 덤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햇반 2개 가격으로 6개를 구입할 수 있어, 1700원의 햇반을 개당 566원에 구입하는 셈이다.

또한, 새로360ml병 6입을 24% 할인된 8200원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마트24 모바일 앱에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3500명에게 '하겐다즈딸기(미니컵 또는 바)'를 24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예약픽업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행사카드가 없어도 쿠폰으로 '하겐다즈딸기(미니컵/바)'를 2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휴가지 당일배송족' 급증... 신규고객 최대 4배 ↑

휴가지 점포 작년 여름 온라인 일 매출 전 점 평균 보다 2배 가량 증가 추세 내일부터 '썸머 슈퍼세일 홈플러스'

'휴가지 당일배송족'이 늘면서 국내 대표 휴가지에 위치한 홈플러스 점포의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홈플러스가 23일 밝혔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송하는 맞춤배송 전략이 적중하면서 여름철 휴가지 고객 수요까지 홈플러스 온라인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하는 홈플러스 온라인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점포에서 상품을 적시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쇼핑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편의성을 기반으로 휴가철에는 부피가 큰 생필품부터 더운 날씨 탓에 변질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까지 고객이 선택한 시간에 휴가지에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고객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대표 휴가지에 위치한 강릉점/삼척점(강원), 센텀시티점(부산), 경주점(경북), 서귀포점(제주) 등 5개 매장의 지난해 7~9월 일 매출은 1~2월 대비 14% 가량 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점 평균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5개점의 여름철 신규고객 증가는 겨울철과 비교해 평균 18%, 최대 42%의 차이를 보였다.

점포별로는 성수기 당일배송수요가

크게 몰리는 제주지역의 서귀포점이 가장 높은 신규고객 성장률을 기록했다. 서울/경기지역 대표 도심 점포와 비교했을 때 7~9월 신규고객 증가율이 무려 4배 높았으며, 전체 고객도 도심 점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성장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역대급 할인 혜택을 선사하는 '썸머 슈퍼세일! 썸머 홈플러스'를 개최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G마켓·옥션 '온도주의 캠페인' 전개 관련상품 최대 75% ↓

G마켓과 옥션이 내달 18일까지 2024년 에너지 상생 기획전 '온도주의 캠페인'을 열고 무전력, 절전 관련 6만여개의 생활·스포츠용품 최대 75%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쿠폰 혜택도 제공한다. '온도주의 10% 할인쿠폰'을 ID당 매일 5장씩 제공한다. 행사 제품 대상 5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만원까지 할인되며, 발급 당일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 카드로 결제하면 기획전 종료 이후 카드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10% (결제 건당 1만원 이상 최대 5만원 할인)를 캐시백 지급한다.

캠페인은 ▲자동차용품 ▲자전거용품 ▲공구/캠핑/생활 ▲냉감의류 등 총 4개의 상품군으로 나눠 에너지 절감 상품을 소개한다.

자동차용품으로 태양광 충전 무선 하이패스, 엔진오일, 카셔클레이터 등을, 자전거용품으로 접이식자전거, 자전거헬멧, 아이스백밴드 등을 선보인다. 공구/캠핑/생활용품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콘센트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절전 타이머, 실링팬 등을, 그 외 팔토시, 냉감마스크, 기능성 등산복 등 냉감의류를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여름방학 맞아 할인전·팝업

4주간 '토이저러스 플레이 데이' 1000여종 완구 등 프로모션 진행

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 및 팝업 스토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토이저러스 데이를 기념해 전 세계 토이저러스가 7월부터 8월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글로벌 이벤트 '플레이 데이(PLAY DAY)'에 동참, 지난

1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주간 '토이저러스 플레이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1000여종의 인기 완구 상품 할인 행사와 이벤트, 팝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행사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완구', '아빠도 갖고 싶은 키티트 완구', '가족과 같이 즐기는 완구' 총 3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상품들을 선보인다.

'내가 갖고 싶은 완구' 테마의 대표 상품으로 핑크퐁, 포켓몬스터, 헬로카봇 등 인기 캐릭터 행사 상품을 최대 40%, 레고는 최대 50%, 주라기월드는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아빠도 갖고 싶은 키티트' 테마의 경우 'PS5 디스크 슬림 본체'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 행사 카드 결제 시 6만원 할인된 62만8000원으로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지난 20일 토이저러스 청량리점에서 진행한 플레이데이 현장 이벤트에서 토이저러스의 캐릭터 '제프리'가 고객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롯데마트

셀트리온, 제3공장 최종점검... “연말 상업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특화시설 구축 3공장, 올해 12월 상업생산 예정 1·2공장포함 25만 / 생산 확보



셀트리온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조감도.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자사가 개발한 ‘집펜트라’를 ‘신약’으로 출시한 가운데, 제3공장 연내 가동으로 ‘전략적 생산기지’ 마련에 속도를 낸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제3공장이 상업생산 가동 전 최종 밸리데이션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밸리데이션이란 의약품 상업 생산 이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로, 의약품 제조공정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체 과정에서 제품이 미리 설정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 문서화하는 작업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7개월간 약 2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제3공장을 신규 준공했다. 본격적인 상업 생산은 오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제3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6만리터로, 기존 10만리터 규모의 제1공장과 9만리터 규모의 제2공장까지 합쳐 셀트리온은 총 25만리

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제3공장에는 7500리터 배양기 총 8개가 배치됐는데, 다양한 품목을 경제성 있게 소량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특화된 시설이다.

셀트리온은 제3공장에 세포 증식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는 신규 배양 공정 설비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정제 공정에는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최신 기술을 집약시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셀트리온은 제3공장의 실제 생산량이나 매출 기여도는 기존 생산시설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제3공장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셀트리온의 최근 성과 또한 뒷받침되고 있다.

셀트리온이 지난 3월부터 미국에서 출시한 ‘집펜트라’는 본격적인 매출 확대 단계에 진입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에서 익스프레스스크립츠와 같은 대형사를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처방 약급여관리업체들과 처방집 등재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 중이다.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들 계약의 보험 환급이 지난 6월부터 본격 이뤄져 실질적인 처방집 등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집펜트라 미국 매출액이 오는 2024년

2880억원, 2025년 1조937억원, 2026년 2조763억원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집펜트라라는 신약으로 출시된 만큼, 바이오시밀러 대비 3~4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셀트리온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집펜트라 후속으로 오는 2025년까지 11개, 2030년까지 총 22개의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최근 줄레이 바이오시밀러 ‘움리클로’, 스탠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텐젤트’ 등 고역가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잇따라 획득했는데, 셀트리온은 해당 품목들의 본격적인 상업화에 있어서 유연한 생산이 가능한 제3공장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허가를 진행 중인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증설한 제3공장이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매년 증대되는 만큼, 전략적 성장 계획과 선제적 시장 대응을 통해 성장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뉴오리진 키크릿젤리. /유한건강생활

유한건강생활 뉴오리진 “어린이 성장 도와요”

유한건강생활이 어린이용 건강제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유한건강생활은 ‘뉴오리진 키크릿젤리’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한건강생활에 따르면 ‘뉴오리진 키크릿젤리’는 ‘유산균발효균추출물’을 주 원료로 함유하고 있다. 또 유한건강생활이 8년 연구 끝에 개발한 ‘녹용효소분해추출물’과 국내 최초·유일 편안한 소화를 위해 특허 받은 ‘A2 단백질’을 소량 포함한다.

이와 함께 뉴오리진 키크릿젤리는 까무까무(비타민C), 구아바(아연), 우유(칼슘) 등 원물 그대로의 영양소를 살린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내달 새 정산 시스템 도입... 안전성 강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논란 이미 구매한 상품 판매중단 등 배송일정 변경에 소비자 불안 ↑



티몬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쿠팡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는 곧바로 “안전하고 빠른 신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상품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고객은 구매한 상품의 배송 일정이 ‘8월 예정’으로 안내되거나 ‘상품판매 중단’ ‘이미 구매한 상품 취

소’ 등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티몬, 위메프에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의 상품을 제외한 상품 구매는 가능한 상태다.

티몬의 선불충전금인 ‘티몬캐시’ 판

매 페이지에는 ‘미사용 티켓 환불제 미적용 상품’이라는 환불규정이 명시돼 있는데도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매취소 공지를 안내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올라왔다. ‘환불 요청 중이 하루가 넘었는데 답변이 없다’, ‘망한 거 아니냐’, ‘불안하다. 휴가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 측은 23일 즉각 입장문을 밝혔다. 판매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대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산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제3의 금융 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안전하게 거치하고, 빠른 정산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일시적인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며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 이탈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8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결제하면 각 회사에 대금이 보관돼 있다가 판매자별 정산 일자에 맞춰 지급되는 형태였다면, 새로운 시스템은 안전한 제3의 금융 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고(에스크로 방식), 고객들의 구매 확정 이후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티몬과 위메프는 상품 판매에 대한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받는다.

즉, 전체 결제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급 일자 또한 크게 앞당겨 빠르면 주간 단위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8월 중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판매자들에 공개하고, 이용방법과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데상트골프

‘큐롯 컬렉션’ 화보 공개

골프웨어 브랜드 ‘데상트골프’가 여성용 골프 의류 제품군을 강화하고, 모델 착용 화보를 공개했다.

데상트코리아는 데상트골프 브랜드가 여성용 ‘큐롯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모델 김진경과 함께 한 화보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데상트골프에 따르면 데상트골프 ‘큐롯 컬렉션’은 복잡한 장식을 절제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주름 굽기와 위치 등을 다채롭게 변형한 입체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드 플리즈 포인트 스커트’는 양 측면 사선 절개 패턴 사이의 주름 모양으로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것이 데상트골프 측의 설명이다. 색상 핑크와 검정 두 가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섬 ‘시스템’, 파리 라파예트百 입성

내년 1월 말까지 팝업 스토어 진행

패션 기업 ‘한섬’이 프랑스파리에서 팝업 스토어를 개최한다

현대백화점그룹 한섬은 프랑스 파리의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 오스만 본점(이하 라파예트)에 국내 여성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라파예트의 입점 제안을 통해 진행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내년 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팝업 스토어는 라파예트 오스만 본점 여성관 2층에서 지난 17일부터 진행됐다.

‘시스템’만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철학을 담은 제품부터 미니멀한 감성의 일상복까지 총 200여 종의 제품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는 것이 현대백화점그룹 측의 설명이다.

한섬은 이번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유통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섬이 라파예트와 함께 프랑스 3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프랭탕, 봉마르세를 비롯해, K-패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권 주요 백화점에서도 단독 매장 개점을 제외받아 협의 중에 있다는 게 현대백화점그룹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보건의료표준 선도병원 선정

의료 이용·기관, 편의·효율성 확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사업에 동참해 환자들의 의료이용 편의성과 의료기관의 효율성 확보에 앞장선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표준 현장실증 및 확산을 위한 표준선도기관 지원사업’에 이대목동병원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 교류 시 진단명, 주증상, 검사 결과, 치료약제 등 표준화된 정보 형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선도 병원을 지정하고, 오는 2024년 12월까지

의료 현장에서 표준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선도병원 사업의 공동기관으로, 주관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과 또 다른 협력기관인 비트컴퓨터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대응 경험을 적극 활용해 표준 관리를 위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검증을 추진한다. 표준 고시 적용 및 데이터 교류 실증 테스트를 실시해 중별 적용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료데이터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청하 기자

제일파프 40주년

‘펍권’ 캐릭터 신규 광고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제일파프’ 40주년을 맞아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40년 전통의 ‘펍권’ 캐릭터와 함께 제일파프 신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신규 광고는 제일파프 브랜드를 상징하는 ‘펍권’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광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특히 ‘바쁘다 바빠’, ‘내가 제일파프지’ 등 추억의 광고 문구도 다시 등장시켜 소비자 친근감을 높였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지난 1월에는 1980년대 제품 디자인을 활용한 제일파프 레트로 패키지도 선보였다.

/이청하 기자

24654478 2166

제2회 2024년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제품·인재) 공고

-The Age of Edge ACx : AI·클라우드 비즈니스 성공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SW·ICT총연합회는 ABCDi 첨단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장점유율 1위 초월제품과 우수인재를 선정·시상하는시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조 풍 연

- 시상개요** | 2024년 ABCDi 기술혁신을 통해 상용화한 시장점유율 최고이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글로벌 디지털 초월제품 및 인재를 선정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 후 원** | 조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정보화협의회, 공공발주자협의회

시상내역	시상 부문	표창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	12점	과기정통부장관상 2점 및 조달청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재정정보원장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상, 전자신문사사장상, 한국SW·ICT총연합회장상 등
	개인	3점	

* 상격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자격요건	시상 부문	신청 대상 및 자격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	ABCDi 첨단 혁신기술을 상용화 하여 국내·외 시장점유율 1위나 수출 실적이 우수한 초월제품(제품, 서비스, 플랫폼)	장관상 최소 수공 기간 - 개인 3년 - 단체 2년
	개인	첨단 혁신기술을 연구개발 및 상용화하여 산업발전 및 국익 증진에 공헌한 개인	

* 대상자 추천 및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제2회 2024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4년 7월 19일 ~ 2024년 8월 16일 * 메일과 우편접수는 8월16일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
접수방법 : 메일(kswict@kswict.or.kr) 또는 우편(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연구소 빌딩 1층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 시 상** | 2024년 11월 25일 (컨퍼런스 행사 일정에 맞춤)

-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 1차 AI 심사 ▶ 2차 전문가 심사 ▶ 최종 심사
- 1차심사 | 제출된 서류의 공고 기준 해당 여부 등 AI심사
- 2차심사 | 1차심사 통과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
- 최종심사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관표창 대상자 확정



신한라이프, '중장년채용 문화 확산 우수기업' 선정
 신한라이프는 지난 22일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중장년 채용 문화 확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KT&G 임직원, 앞담배 농가 수확 봉사활동
 KT&G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앞담배 농가를 돕기 위해 앞담배 수확 봉사활동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사에는 대전 본사와 김천공장, 충북본부 등에 소속된 KT&G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에 위치한 앞담배 농가를 방문해 약 1만㎡(3025평) 규모 농지에서 앞담배 수확을 도왔다. /KT&G



교보증권, 결식우려 아동에 식량키트 후원
 교보증권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드림이 따뜻한 밥상'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여해 '드림이 희망기부' 후원아동에게 보낼 식량키트 290개를 만들었다. (맨앞줄 왼쪽부터) 최병수 기아대척 팀장과 박봉근 교보증권 대표이사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쪽방촌 등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NH투자증권은 23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과 자활 노동자들을 위한 삼계탕과 여름나기 음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삼계탕 나눔행사를 열고 삼계탕 600인분과 김치 300박스(3kg), 수박 등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정병창 광야홀리스센터 사무국장, 김형욱 영등포 쪽방상담소장,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 대표, 최홍석 NH투자증권 ESG추진부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임직원 헌혈 캠페인 '키움과 채움' 진행
 키움증권은 23일부터 이틀간 임직원 헌혈 캠페인 '키움과 채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키움과 채움은 키움증권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임직원 헌혈 캠페인이다. 키움증권이 서울 여의도 TPE타워(옛 사학연금회관)로 본사를 이전한 후 처음 갖는 임직원 참여 활동이다. /키움증권

종합 외식 교육기관 '롯데GRS 아카데미' 개소

**롯데GRS 금천 사옥 새단장
 차우철 대표 "외식 트렌드 선도"**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 롯데GRS가 금천롯데타워 사옥을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인 '롯데GRS 아카데미'로 탈바꿈해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진행된 개소식에는 롯데GRS 차우철 대표이사, 롯데GRS 신동권, 황문호 사외이사와 함께 롯데리아 가맹 협의회회 각 지역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롯데GRS 차우철 대표이사는 개소식 축사에서 "롯데GRS 아카데미 개소식으로 단순한 교육 시설을 넘어 외식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고, 전문적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22일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롯데GRS 아카데미 히스토리 뮤지엄에서 차우철 대표이사(가운데)와 사외이사 및 롯데리아 가맹 협의회장들이 참석해 개소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GRS

롯데GRS 아카데미는 5층부터 8층까지 이론 및 실습 등 교육을 위한 대·중·소 강의장과 함께 전산 강의장 등 총 7개의 강의장과 6층부터 8층까지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및 컨디션 사업 브랜드의 제조 실습을 위한 파일럿샵을 구축했다.

10층에는 1실 4인이 투숙 가능한

기숙시설 10개실을 구축해 총 40명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 시설도 설계해 지역 교육생을 위한 편리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9층에는 롯데GRS의 45년간의 역사와 행보를 소개하는 히스토리 뮤지엄을 마련해 각 브랜드를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를 기록한 공간으로 기획했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롯데GRS 아카데미는 향후 내부 임직원 교육과 더불어 외부 기관과의 교육 협업을 통한 교육 시설 대관 등 지자체 및 민간 기업 등과의 협업 활동으로 종합 외식기업 교육 기관 역할을 통한 인재 육성의 요람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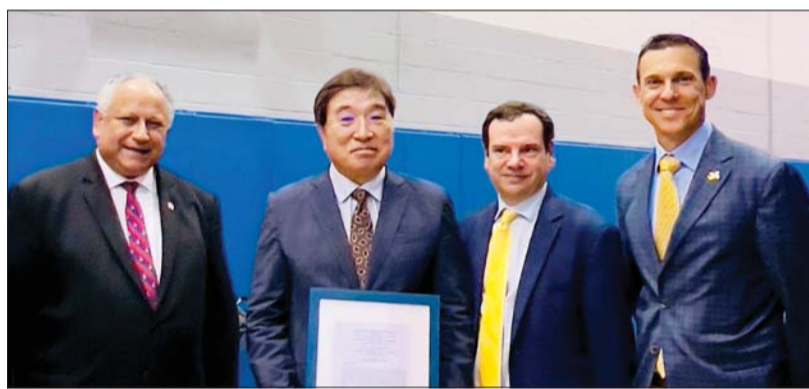
HD현대, 조선산업 차세대 인재 키운다

미시간대-서울대 교육협력 MOU

HD현대가 한·미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에 나선다.

HD현대에는 최근 조선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미국 미시간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 시간 22일 기념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맥콤커뮤니티 대학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 자문, 미시간대학교 조선-해양 공학대 조너선 페이지 교수를 비롯해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



좌측부터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 자문, 해군성 장관 스티브 브락 특별보좌관, 미시간대학교 조선-해양 공학대 조너선 페이지 교수. /HD현대

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와 서울대학교는 공동연구 및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등 미시간대학교와의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등 미국

내 다른 대학교들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 HD현대가 보유한 선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한 후 협력을 요청해 이뤄졌다. /서대성 기자 iurmds@

현대제철 'ISO 22301' 취득

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 국제 표준 인증인 'ISO 22301'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22301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지 IT 관련 업종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인증으로서, 각종 사고나 재해·재난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복구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인증이다.

이번에 취득한 국제인증은 당진 제철소와 순천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연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부터 인증 획득을 추진해 각종 위험 요소별 대응 매뉴얼과 복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모의 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제너시스BBQ그룹, 심관섭 신임 대표이사 임명

(前 미니스톱 대표이사)

미니스톱 대표이사 등 역임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신임 대표이사에 심관섭(사진) 전 미니스톱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대표는 성균관대 영어영문과 출신으로 지난 1992년 미원(現 대상)의 미원통상에 입사한 뒤

2004년 미니스톱 영업기획실장을 거쳐 상품본부장,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BBQ 관계자는 "심 대표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프랜차이즈산업 전문가"라며 "심 대표가 프랜차이즈산업에서 영업, 상

품, 전략 등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BBQ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관섭 대표이사 선임으로 윤홍근 회장의 동생 윤경주 부회장은 그간 맡아오던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호프 푸드팩' 캠페인 전개

CJ제일제당은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식사를 해결해주는 '호프 푸드 팩(Hope Food Pack)' 캠페인을 협력업체인 미정당과 함께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CJ제

일제당은 2020년부터 매년 캠페인을 진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으며,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CJ제일제당은 2억원 상당의 핫반 컵반·비비고 국

물요리·스팸 등을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2000명의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전달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상당수 아동들은 부모 맞벌이 등의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급식이 없는 방학, 주말 등에 맞춰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부음

▲이두호씨 별세, 이원식·이원화·이원욱씨 부친상 = 2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02-2258-5961

▲이선호씨 별세, 김희자씨 남편상, 이우현(혼합현실세계그룹 공동대표)·이주현씨 부친상 = 22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02-3010-2000

▲신정희씨 별세, 정태균(신한금융투자 상무)·정성욱·정영균(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씨 모친상 = 23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5일. 02-3010-2230

▲공우영(향년 71세)씨 별세, 공윤선(MBC뉴스룸 사회정책팀 차장)·공윤재씨 부친상, 황인범·장준일(SK에너지 P M)씨 장인상, 공영애씨 동생상 = 22일 오후 6시 19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50분, 장지 천주교용인공원묘원. 02-2030-7903

설득 불가능한 믿음, '망상'



진성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망상(妄想, delusion)은 실제 근거가 없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것이다. 보통은 병리적인 수준의 믿음을 의미하지만, 믿음보다는 가정(假定)이나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상학적으로는 망상은 사실과 다르게 설득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부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환자는 망상 내용을 확고하게 신봉하고 스스로 진정 옳다고 믿는다. 이런 면에서 주관적으로 정상적인 믿음과는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면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망상이란 자신은 사실이라고 믿으나 타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다.

망상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피해망상이다. 보통 자신의 삶이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고 도움은커녕 해를 입는다고 느낀다.

이것의 변형된 형태의 하나는 편견 망상이다. 이 망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

의 때문에 무시당하고 경시되며 승진에서 추월당한다고 믿는다. 가해자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 기계, 체계, 조직, 제도일 수도 있다.

다른 흔하게 볼 수 있는 망상 중 하나는 병적 질투가 있다. 병적 질투는 지배관념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녀에게 속한다' 그런데 이 서로의 지배 관계에 누가 끼어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병적인 질투를 보이는 환자는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자신만이 누려야 하는 정절의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느낀다. 특히 이런 경우 망상의 내용은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질투 망상에서 희생자는 성적으로 더 많은 매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스스로 과거 성적으로 문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배우자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이런 망상은 폭력을 동반하게 되고 망상의 대상이 되는 연적보다는 배우자에게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면에서 스토킹도가 가볍게 진행되는 질투 망상의 색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치료자들은 망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설득하기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접근한다. 그래서 망상의 주제 자체를 가지고 논박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여긴다.

아직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에 보는 태양이나 달은 둥근 데 지구만 어떻게 평평한가'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그들은 다양한 논박을 한다. 이런 형태의 망상이 심하게 작동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타인을 괴롭힌다면 우리는 치료를 권유한다.

그러나 어떤 망상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언 듯 볼 때 망상으로 보였던 생각들이 실제 실천되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면도 있다.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이 없었다면, 혹은 우주를 개척할 것이라는 망상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좋은 망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일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한 좋은 망상인지의 여부는 인간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그 망상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고려한다면 좋은 망상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망상'을 가져본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정부, 주택공급 부족 우려 해소해야



기지수첩
김대환 (정책사회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을 확산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집을 파는 매도인 비중은 줄어들면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전월(-0.02%) 대비 0.06% 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전국 집값은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0.14%→0.38%)은 선호 단지·저가 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면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 시장

의 모습을 보이며 상승했다. 인천(0.07%→0.14%)은 중·서·남동구 주유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8%→0.07%)의 경우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천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실제로 수도권 곳곳에서 매매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데온'은 이달 전용면적 84㎡가 18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거래인 지난달 매매가격(17억원)과 비교하면 1억원이나 올랐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우미린더시그니처'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7억7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5월 7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난지 두 달여 만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관교푸르지오그랑블'은 이달 139㎡가 39억원에 거

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지난 5월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1억8000만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물량 부족과 신축 선호 현상 등으로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시장은 당분간 신축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준공(입주)물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택 인허가가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신규 주택 품귀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인허가 이후에도 실제 착공 여부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공급 부족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24일 (음 6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침묵해야 모두가 편하게 간다. 48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60년생 눈에서 멀어져서 마음은 변하지 마라. 72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좀 더 노력하라. 84년생 과한 것보다 좀 모자란 것이 낫지 않겠는가.



37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를 높이고 실속도 챙긴다. 49년생 내가 먼저 행동해야 상대도 따라온다. 61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73년생 희망과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적다. 85년생 손풍에 뚫나개 바닷가 새끼 새끼로 하루.



38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따르자 상쾌. 50년생 혼자서 외롭지만 둘은 시끄럽다. 62년생 여기저기 계속되는 지출에 삶이 지겨워진다. 74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스럽다. 86년생 늦었다고 포기 말자 절대적이다.



39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51년생 의견충돌이 염려되니 고집을 조심. 63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5년생 본질의 말은 쉬우나 주위 답을 수 없으니 조심. 87년생 혼자서라도 웃으면서 지내라.



40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52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걸어 간다. 64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과 의논. 76년생 오늘은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88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41년생 푸바오도 인기 많은데 나는 뭘 한 것인지. 53년생 어제의 친구가 적으로 오니 배신감을 느낀다. 65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 77년생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좋다. 89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42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한 날. 54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까 걱정된다. 66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78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니 보람이 있는 하루다. 90년생 욕심을 부리면 발목을 꼭 잡힌다.



43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사랑도 돈도 있어야. 55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67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한다. 79년생 나의 불평은 나의 운을 깬다. 91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지체.



44년생 평온한 바다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하루. 56년생 고칠 수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68년생 재능 많은 자식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 80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찾자. 92년생 민망한 일을 겪을 수 있는 하루니 조심.



4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57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69년생 행복은 건강에서 비롯된다. 81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93년생 거래가 손조롭게 진행 되는 날이나 기쁘다.



46년생 자존감은 자신을 지켜주는 힘. 58년생 힘들어도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70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보자. 82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품어라. 94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47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이익을 놓친다. 59년생 친구가 찾아와서 근심을 던져준다. 71년생 슬만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83년생 주변이 인정해 주니 마음이 안정. 95년생 변화가 있어도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것마저 놓치지 않도록.

김상회의四季

김 산, 푸바오는



푸바오와 할부지에 얽혀진다. 푸바오 '행복을 주는 보물' 이름도 열렬 푸바오 팬들의 투표로 정해졌으니 태어나고 한국을 떠날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은 그야말로 관심과 사랑 그 자체의 기록이다. 푸바오가 일종의 임대계약을 하여 중국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환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다. 대왕판다의 짝짓기 적령기는 3-4살 따라서 푸바오는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있는 대왕판다 보전연구소에서 짝을 만나야 하는 계획이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붙잡아들 수만은 없는 계약도 계약이지만 사랑하기에 보내야만 하는 사정이다. 그간 푸바오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지라 푸바오가 학대당한 것 같다는 우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푸바오를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워냈고 중국 반환시에도 동행했던 사육사님의 심정이 누구보다 착잡하고 심려스러웠을 것이다.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실감에 휩싸이는지를 사랑으로 보살펴본 사람은 잘 알기 때문이다. 아가 푸바오를 보면서 필자는 아가 김 산을 생각한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다. 필자가 자식으로 함께했던 독일산 셰퍼드를 계보로 하는 영특하고 장난기 심했던 슈나우저 필자의 아가, 김 산(金山) 그리움을 말하라면 김 산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12년을 함께하다가 하늘의 별로 떠났고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다. 처절한 그리움으로 지내던 어느 날, 산이가 낯은 새끼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가 슈나우저, 예전의 산(山)이와 똑같은 생김새, 목소리로 다시 와졌다. 산 신(山神) 할아버지가 보내주셨으니 이름은 똑같이 김 산(金山)으로 했다. 먼저 간 김 산의 후신 아가 김 산(金山)을 필자는 기도로 다시 만났기에 푸바오를 다시 만나기를 기도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58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빠르게 늘어가는 '초등 의대반'... 교육부, 특별점검 나섰다

정상 교육과정 최대 14배 선행 실태조사 등 사교육 폐해 방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초등 의대반, 초등 3~6학년 대상의 대진학 기회의 장이 열립니다.'

최근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고속 선행 교육을 진행하는 '초등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23일 학원가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일부 학원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고교 수학 과정을 가르치는 등 정상 교육과정의 최대 14배 속도로 선행 학습이 이뤄지고 있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초등의대반'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인터넷 광고도 횡행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효과가 떨어지는 상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학원가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과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왼쪽)이 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황이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과열 확산 추세로, 이들 학원 중심으로 과거의 선행학습 관행을 뛰어넘는 초고도 속진 선행상품이 등장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격세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H 학원 '초등의대반'의 경우 초등 5학년부터 시작해 3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교 3학년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대치동의 N 학원의 경우 초등 3학년에게 고

교 1학년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었다.

G 학원은 초등 2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초등 5학년 과정은 7년을 앞당겨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1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한다. 이 학원의 선행학습의 진도 속도를 계산하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 '초고속 속진 선행교육'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 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거나 '의대·지

대·한의대·약대·수의대반 개강, 입시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등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인터넷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라며 "적발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탈세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 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방학 중 행복밥상' 확대 운영

총 예산 22.2억... 30개 시군 지원

경기도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지역을 올해 여름 방학부터 기존 23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는 초등돌봄시설로 경기도에 310개가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학기와 달리 방학 때는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경기도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202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시작해 용인시 등 23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198개소 4550명을 지원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원, 부천, 안양, 의

정부, 오산, 안성, 연천 등 7개 시군을 추가해 30개 시군(자체 사업이 있는 성남 제외)에서 전면 시행된다.

특히 여름방학부터는 학교내 초등돌봄교실인 학교돌봄터에서도 중식 비용 지원이 이뤄져 도내 30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7465명과 7개 시군 11개 교 학교돌봄터 이용 472명 등 총 793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총예산은 22억 2700만 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급식비 9천 원(1식 기준)에서 도와 시군이 급식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이용 가정이 나머지 50%를 자부담하는 것이다. 급식은 돌봄센터 내 조리실을 활용하거나 외부 급식업체(도시락)와 연계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표준화된 급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유진 기자 yujin@

대교협, 내일 '수시 대입박람회' 개최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 149개 대학 참가... 상담관 등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수시 대입박람회에는 전국 149개 대학이 참가해 각 대학의 전형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관련 교수,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이 해당 대학의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해당대학의 입학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도 현장을 찾아 1대 1 대입상담을 진행한다. '1대 1 대입상담'은 코엑스 3층(319~326)에서 박람회 기간 중 진행되고,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한다. 상담 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의 전화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일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정보와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이 특별관으로 운영된다.

한국장학재단 홍보관에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장학금 등 안내 및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소개가 이뤄지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홍보관(체육특기자 선발 종목·대학·

전형·인정대회별 검색서비스 및 활용 안내,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 제공)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홍보관(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정보 제공) ▲전공자율선택제 홍보관(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취지 및 학생들에 대한 기대효과, 관련 모집 학과 정보 제공) ▲대학알리미 홍보관(대학알리미 검색 방법 시연 및 안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홍보관(차세대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어디가' 및 표준공통원서 접수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등의 특별관도 마련된다.

전시장 입장 예약 방법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람회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4시 30분, 입장료는 2000원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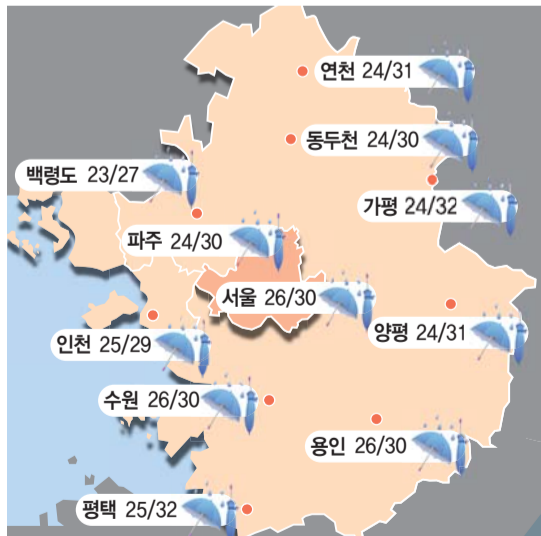
해돋이 / 05:30 | 해질 / 19:47

7월 24일(수) 음력: 6월 19일

수도권 날씨

26~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이달말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30일부터 600억 규모 판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6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서울사랑샵)에서도 쓸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하면 된다.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3시~저녁 7시에 상품권을 살 수 있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1@

오세훈 서울시장 7박9일 해외출장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중국 충칭과 베이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기후분야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도시들과 기후 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김현정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러시아 "프랑스 측 파리 올림픽 취재 거부는 언론 자유 침해"
▲'매직넘버' 확보한 해리스 "공 공식 후보 지명 수락 고대" /사진 뉴스스

▲中, "핵무기 먼저 사용 안할 것 약속해야" 제안
▲대만 라이칭더 트럼프에 "올인설"... 총통부 "사실 아냐"



▲교황 이어 마크롱, 바흐 IOC위원장도 '올림픽 휴전' 요청 /사진 뉴스스
▲블링컨 미 국무, 8일간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 순방



오리온
제과 중심
글로벌 확장 총력
L1



Life

셀트리온
제3공장
연내 가동 속도
L2



“기업과 상생하는 ‘인게이지먼트 펀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해답 될 것”

속깊은 인터뷰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가치투자의 시초이자 대가였다. 1998년 국내 첫 가치투자 펀드인 ‘밸류이체먼트펀드’를 개발했고, 1999년 기술주 열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로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13년간 가치주 펀드로 1400%의 누적 수익을 내며 ‘국내 증시에서 가치투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을 보란 듯 깬다. 외길을 걸어온지 30여년, 그의 이름은 그대로 가치투자의 고유명사이자 대표 브랜드가 됐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사진)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만났다. 그는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지난 17일 주최한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의 기조강연자로 참석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의 운용자산(AUM)은 출범 3년만에 1조2600억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선 ‘기적’으로 불린다. 라이프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ESG 기반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대표 상품인 ‘라이프한국기업ESG향상1호’는 ‘착한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국내 첫 ‘인게이지먼트 펀드’다. 이 대표의 운영 펀드는 2022년 한해 코스피수치가 24.9% 추락할 동안 0.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롱바이어스(매수 위주) 주식형 사모펀드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을 내 주목을 받았다.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55.69%에 달한다. 이 의장은 자신이 고수해 온 전통 가치투자의 한계를 뛰어넘은 ‘착한 행동주의 펀드’로 국내 증시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라이프자산운용의 투자 철학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라이프(LIFE)는 ‘Longterm Investment For Everyone(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의 약자다. 한 단계 진보된 형태의 가치투자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인게이지먼트 펀드를 만든 계기는.

“2000년부터 가치주 펀드를 운용하며 13년간 1400%의 누적수익을 냈다. 하지만 마지막 3년은 정말 어려웠다. 성장주가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 전통 가치주 펀드들의 성과가 좋지 않았다. 가치주라고 투자한 기업들은 거버넌스가 취약했다. 소통을 거부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었고, 상승 승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주가가 오르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가치주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SG를 접목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게이지먼트 펀드는 어떤 전략을 취하나.

“인게이지먼트 전략은 주주협력주의로 표현된다. 기존 주주행동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행동주의 펀드는 주식을 먼저 사고 그 뒤에 배당 등을 요구하지만 협력주의는 주주 환원보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며, 기업 가치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만 골라 투자한다.기업과 상생해 같이 성장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채원 의장이 지난 17일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참석에 앞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모두를 위한 투자’ 슬로건으로 가치투자 구현 가치주펀드 운용, 13년간 1400% 누적수익 인게이지먼트 펀드는 ‘주주협력주의’ 전략 도덕 중요한 세상... 투자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이 의장은 이제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이 열렸다고 봤다. 도덕적인 사람과 기업, 적어도 ‘도덕적인 척이라도 하는’ 사람과 기업이 주목을 받는 시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 속에, 투자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었나.

“과거 10년은 저금리·디플레이션 구간이었다. 좋은 부지를 좋은 가격에 얻어 공장을 세우고,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기 쉬웠다. 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후발주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시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고금리·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시작됐다. 물가가 높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워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됐다. 이제는 선발주자의 시대다. 차입금이 없고, 현금을 충분히 들고 있고, 좋은 부지에 좋은 공장을 갖추고 있는 우량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다.”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과거 세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꽤 오랜기간 군사력과 권력, 즉 ‘힘’이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면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시작됐다. 신자유주의, 자율경제로 자본주의가 팽창하며 불평등과 빈부 격차와 같은 양극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 힘과 돈을 거쳐 ‘도덕’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이다. 이제는 우량한 기업들 가운데 지배구조가 훌륭하고, 개선의지가 있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착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봤다. 여야가 제시하고 있는 상법 개정, 세제 개편이 가시화 될 경우 국내 증시를 떠나간 투자자들

이 돌아오고, 코스피 5000시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능성은.

“이미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명분이 확실하다. 아직 아젠다만 제시한 상황이지만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본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에 역대 최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 작년 이익 성장이 가장 부진한 시장 중 하나였지만 올해 주당순이익(EPS) 증가율 68.93%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턴어라운드 시장이 될 전망이다. 환경은 바뀌고 있고 수급도 좋은 상황이다. 한국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업가치 올리는 ‘착한 기업’ 주목받는 시대 좋은 지배구조, 주주환원 기업에 집중할 때 K-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밸류업과 맞물려 착한행동주의 ‘인게이지먼트 펀드’ 대세될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뭐라고 보나.

“비합리적이고 불균형한 문제들이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15%에 그친다. 일본의 배당 성향은 35%, 대만 50%, 미국은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하면 거의 90%라는 얘기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안하는 것은 세율의 불균형 때문이다. 모든 대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는 최고세율 58%에 달한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25%로 상대적으로 낮다. 대주주 입장에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가 기업을 팔아버리는게 훨씬 이익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일반주주에게 15.4%, 대주주는 25%를 과세하면 기업 이해관계자들도 배당을 안할 이유가 없어진다.

“모든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라고 지정해 놓은 상법 382조 2항도 문제 요소다. 선진국들은 기업이 주주를 위해 일한다는 ‘주주 자본주의’도 문제를 삼고 있다. 기업이 회사와 주주만

이 아닌 일반 직원들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여전히 기업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고, 주주 자본주의까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30~40%의 지배주주가 60~70%의 일반 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모든 기업의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 일한다’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정말 가능할까.

“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세법 개정은 ‘당근’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은 ‘채찍’이다. 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실현이 되고, 상승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5000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가치투자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던 이 의장은 이제 ‘인게이지먼트 펀드’가 대세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착한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인게이지먼트 펀드는 밸류업의 최종 목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인게이지먼트 전략이 맞아 떨어진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게이지먼트 펀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시장은 엄청 활성화 되고 커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하나.

“시장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제는 업종보다는 업종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 좋은 기업들에 집중해야 할 때다. 주당순자산가치(PBR)가 너무 낮다는 것은 사실 성장성이 없고 사양 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PBR 뿐 아니라 주가수익비율(PE)도 함께 낮은 기업을 보는 것이 안전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 지속가능성이 있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 향후 기업 가치를 재고할 의지와 주주 환원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144m 대포’ 오타니, 4년 연속 30홈런...미일 통산 250홈런 눈앞
▲‘프로 첫 멀티홈’ 강원 양민혁, K리그 124라운드 MVP 선정 /사진 뉴시스

▲토틸넘 호이비에르, 마르세유 임대 ‘완전 이적 의무’
▲손흥민,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 출발 ‘일본 거쳐 한국으로’



▲‘드림팀’ 미국, 독일 꺾고 평가전 종료...5연속 금메달 조준
▲던랩, PGA투어 사상 최초 단일 시즌 아마추어·프로 우승 /사진 뉴시스

SAMSUNG

플레이를 더 선명하고 부드럽게 AI로 모든 순간을 업스케일

Neo QLED | Neo QLED 8K | OLED



스포츠도 역시 삼성 AI TV



최신의 삼성 AI TV로 바꿀 역대급 보상찬스
삼성 AI TV로 바꿔보상 (24.7.1 ~ 8.31)

바꿔보상

지금 전국 삼성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보상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시정 경험은 콘텐츠 종류와 포맷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I 업스케일링은 PC로 연결하거나 게임 모드일 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